朝鮮日報
夕刊 五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佛西國境이룬市 叛軍手中에遂陷落

政府軍의必死的防禦도水泡 산·세바스찬市도危險

【앙데四日發同盟】過去數日來一進一退 互相 死力을다하야 싸운 이룬市의 攻防戰도 四日早朝 叛軍最後의 猛攻擊에 政府軍이 崩壞하야 마츰내 佛西兩國境의 要衝 이룬市는 叛軍手中에 들어갓다 이날 未明의어둠이 아직깁고 細雨가 蕭蕭히 내리는 中에 叛軍은 突然機關銃을 猛射하고 市의 心臟部를 目標로 突擊을 開始하엿다 政府軍도 또한 이에應하야 交戰하야 市內到處에서 白兵戰을演出하엿스나 衆寡不敵으로 드듸어 市의要衝 國際橋를 叛軍에게 占領당하야 橋頭 노피 赤과 黃金의 王統旗를揭할수박게 업시되어 數千의 市民과 政府軍의 敗殘兵은 佛領에 避入하얏는데 그中에는 負傷者도多數잇섯다 앙데病院은 此等負傷者의 手當에 忙殺되고잇다 이룬市를占領하야 政府軍을 退却케한 叛軍은 곳 비스케이灣頭의 政府軍의 據點 산·세바스찬港으로向해 進擊을 開始하야 四日正午에는 벌서 라산데市를 占據하엿다

【앙데四日發同盟】反軍이 占領한 이룬市는 撤退에 當하야 政府軍이 放火하얏기때문에 大槪 燃燒하야 이미 太半은 烏有에 歸하고 夕刻에 至하여도 尙今 燃燒中이다 市內의 西部에 殘遂된 政府軍의 一部는 四日午後二時 最後의 逆襲으로 轉하야 一時國際橋를 奪取하야 叛軍側을 唐慌케하얏스나 그것도 얼마동안이오 奪還되어 再次 西方으로 向해 總退却하엿다 國境河川비다소와方面에잇는叛軍에 砲擊을 加하고잇던 政府軍의 砲艦一隻은 이룬市가 陷落되는것을보자 海上으로 逃走하려다가 河口의 淺瀨에 부듸처 乘組員은 一齊히 遁走하엿다

이룬市肅正企圖

【이룬四日發同盟】佛西國境의要衝 이룬市는 四日午前三時부터 叛軍手中에 陷落되고 이 方面의 政府軍의 抵抗은 事實上 全혀 無力하게되엿스나 市內에는 아직 政府軍敗殘兵이 潛伏하야 거리에 [illegible] 狙擊을 하고잇스므로 叛軍도 此等不意의 反擊을 警戒하면서 徐徐히 市政肅正工作을 進行中이다

카탈로니아政廳 全男子에動員令

【부르고스四日發同盟】카탈로니아政廳은 赤色戰線 敗退에 唐惶하야 四日 七歲以上 四十五歲까지의 男子에게 動員令을 發하는 同時에 前科者에게 가르드·디아스(카탈로니아將軍)의 稱號를 與하야 洲防衛軍에 任命하엿다고 傳한다

叛亂軍精銳 首都進擊中

【巴里四日發同盟】叛軍세빌리아 放送局의 放送에 依하면 아게스大佐가 引率한 叛軍의 精銳는 마드리드南方五十키로 톨레도市를 出發하야 首都로 向해 進擊을 開始하얏다 途中 올레도 北方에서 政府軍과 交戰하야 이를 潰走케하엿다고한다 一方 마드리드北方地區에서 몰라將軍麾下의 叛軍은 首都를 包圍한 丘陵地帶를 完全히 占據하야 마드리드를 制하게되엿다

히라르內閣 總辭職 後任은 카바레로氏

【마드리드四日發同盟】호세·히라ー르內閣은 四日午後總辭職하고 即時 社會黨 프란시스코·카발레로氏를首班으로한 第四次人民戰線內閣이 成立되엿다

多數蘇聯志願兵 西國戰線에參加

三千六百五十萬法의軍資金도調達! 佛國쥬ー르紙의報道

【哈爾濱發】平和政策을 表面看板으로 西班牙革命不干涉에 贊同한 蘇聯이 三千六百五十萬法의 軍資金을 西班牙政府軍에게 보내고 그後 依然히 全國民大衆에게 西班牙革命擁護의 宣傳을 繼續하고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佛國「쥬ー르」紙의 蘇聯志願兵의 一隊 西班牙革命戰線參加의 報는 俄然 各方面에 異常한 센세이숀을 揮起하얏다 即 쥬ー르紙所報에 依하면 蘇聯으로부터 多數의 志願兵이 佛國經由 西班牙戰線에 參加하엿다는 報道에 佛國共產黨에서는 特別委員會를 開催하고 此等志願兵歡迎方法을 協議하엿다고 傳한다

西新內閣 更一層左翼化

【마드리드四日發同盟】叛亂軍의 猛攻擊을앞두고 西班牙正統政府는 方今累卵의 危機에 逢着하게되엇는데 破局을 앞두고 히라ー르首相은 마츰내 內閣을 내어던지고 社會黨首領가바네엘氏는 四日午後 아자니아大統領의 委囑에 基하야 後繼內閣을 組織하엿다 新內閣은 社會黨左翼을 樞軸으로 하고잇는데 變함이 업스나 西班牙政史上 처음으로 共產黨員二名이 入閣하고其他 바스크 카탈로니아의 各地方左翼政黨代表가 入閣하야 共和聯合左翼 共和黨을 樞軸으로 매우 左傾하엿다 新內閣의 面貌는如左하다

首相兼陸軍 가바네엘
外相 루바요
海相兼空相 브리에트
內相 가라루사
藏相 네그린博士
無任所相 히라ー르

日本軍需工業을 獨逸積極的後援

蘇聯共產黨機關紙『프라우다』 日獨提携를宣傳

【哈爾濱發】크레믈린當局이 스스로그러한恐怖에 스스로 脅威를 밧고잇다 그恐怖는 西로獨逸, 東으로 日本을 指摘하고 이에對한 敗備를 强化하야, 日獨提携의 脅威를 世界에 宣傳하고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近着의蘇聯 共產黨機關紙 프라우다는 그後 日本의 戰爭計畫에對한 獨逸의技術的 援助라고 題目하고如左한捏造的論文을 揭載하엿다

日本의 大戰準備는 急激히日本의政府當局에 主要日本軍需工業의 落伍問題를 提起하엿다 日本은 獨逸과 거의同程度의 兵力과 顯著히 强大한海軍力을 가젓는데 그生產機關은 훨신 獨逸보다劣等하다

即 뒤떠러진 工業部門의 主要한者를 指摘하면 黑色冶金工業 金生產, 機械製造 工業(造船工業, 航空機工業을包含) 其他化學工業部門等이잇다 戰爭準備線에 沿하야 日本의工業을再建設함에는 먼저 多大한 技術的經驗과 專門的 複雜한 裝備가必要하다 即 日本當局에 이缺陷을 外國의힘으로 補充하려는企圖가 着着 審議되고잇는이때에 맛시즘 獨逸이 이援助에 進出하엿다 이援助는 여러가지 形式으로 나노여잇는데 이를 大別하면如左하다

一、獨逸優秀會社의 技術的援助 例컨대 有名한 크루프는 日本의工業콘체른과 密接한 關係를 매저 一九三二—三六年間에 大軍事工場改造에 助力하고잇스며 八幡製鐵所의 再備事業에 關係하고잇다 좌이스는 日本의 大光學機械工場 建設에 助力中이다

二、特許賣買、日本의 飛行機製作工場의 製作飛行機는 모다 윤켈스、도르니에로르바프等의 標造를 基礎로하고잇다 例컨대 二發動機爆擊機「川崎八七號、八八號·四發動機爆擊機「三菱·윤켈스九一號」其他이다 日本에서는 獨逸의「비·엠·비ー一유겐」發動機가 널리 使用되고잇다 住友化學工業은 獨逸의「팔벤인더스트리」會社로부터硫酸製造工程의 特許를 어덧다 三菱重工業은 橫濱도크에서獨逸機械製造會社「만」의 新特許에依한 디젤機關製造를 하고잇다 三菱콘체른의 總帥池田은 獨逸에서 石炭液化 피셔特許를 買入하엿다 또 最近 크루프會社는 日本에 直接 [illegible]으로 부터 [illegible]을 製産하는 이오가셔特許를 提供하엿다

三、日本工場의 注文을 履行하고 그裝備를 完成케하고잇는 이일에 對하야 爲先 第一로 指摘치안흐면 안될것은 獨逸로부터 各種의 工作機械가 매우만히 輸入되고 잇는것이다 住友滿洲化學、三池硫酸、川崎車輛、等等多數으로 購入하고잇다

四、日本軍事工業其他에잇서서의 獨逸技師가 設計施設事業에 直接參與하야 루브만會社는 日本에서 一九三三年三月 操業開始한 一萬二千噸의 大溶鑛爐建設에 技術的努力을 다하고잇다 크루프는 八幡製鐵所에 二個의 强力한 壓鐵機械를 裝置한 門司 小松 其他諸地方에 多數의 最良實鋼鐵製造工場을 建設하엿다 獨逸의 有名한技師群이 日本의飛行機化學 鐵鋼 機械製造工場에서 일하고잇다 以上外에 日本軍事工業建設에 關進하고잇는 住友는 昨年度부터多數의 日本技師를 獨逸에派遣하야 技術研究를 시키고잇다

산、세바스찬 無條件讓渡?

流血慘劇을避코저

【이룬四日發同盟】이룬市를占領한 叛軍은 쉴새도업시 南方으로 政府軍最後의 牙城산세바스티안에 向하야進擊을 開始、叛軍先兵隊는 이미政府義勇軍의前線陣地에 砲擊을 開始하엿다고한다 산、세바스티안知事는 이미 佛國領에 避難하엿다고傳하는데 아마政府軍은 流血慘事를 避하기爲하야 無條件으로 降伏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亞刺比亞人激昂 英駐屯軍을襲擊

【예루살렘四月發同盟】팔레스타인의 種族鬪爭은 最近 버석惡化하게되엿는데 英國政府의 措處에 激昂한 亞刺比亞人五十餘名은 四日 突然 하이파港南方約六十키로의 나블스市附近街上에서 英國駐屯軍린컨샤聯隊의 一部隊를 襲擊하야 街上戰을 演出하엿다 右戰鬪의結果 亞刺比亞人十名은 戰死하고 六名은 負傷하엿는데 英國人兵도 三名戰死 四名이負傷하엿다 附近駐屯의 蘇格蘭部隊는 急報를 接하야 應援에 出動하엿스나 交通杜絶로 現場에 到着치못해 本部에 打電하야 空軍部隊의 出動을 要請하엿다 그나마 出動한 軍用機中 一臺는 墜落大破하야 搭乘者二名은 即死하엿다 結局 英國軍은 亞刺比亞叛徒의 根據地 바라村에 砲擊을加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는데 情報는 異常한 緊迫을 呈하고잇다

浪人生活로 人間味를맛보겟다

田中前警務局長談

四日總督府首腦部의 異動으로 退官한 前警務局長 田中氏는 다음과가티 感懷를말하엿다 自己가 辭任된 것은自己로서이고 생각한때문이다. 나는朝鮮서 滿十七年中 外事課의四年을除한 外에는警察에서 거이終始하엿다 大正八年에 長野縣警務課長으로 부터 轉任하여가지고 警務局에 在動하야 官吏로서는 忠實할데까지忠實하엿다 그러므로 自己의經歷과出身으로보아 破格의優遇를바든것은 無上의 滿足을늣기며 감사하고잇다 自己는 警務局長으로의 任期가짧어서 무엇을할야고하는때에 退職의 決意하엿스므로 多少間마음에 未練이남어잇는것은事實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한 環境에 處하게된것이므로 特別한 執着心은업다 將來에對하여는 아모것도생각하는것이업다 會社에드러간다는 말이잇지마는 그러한 打算的退官이아니므로 그러한일은絶對로업다 곳東京에가서 浪人生活을하야 좀더 人間味를 맛보려고한다 職務가職이니만치 그동안에 여러분에對하야 만흔未安을 끼친일이잇는줄을 알지마는 退官함에際하야 特別容恕하기를바란다

人事·集會

▲丸山鶴吉氏 八日午前三時京城驛着入京

全市宛然火海

이룬遂廢墟化

【이룬國際橋에서四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四日未明 이룬市에 最後의 突擊을加하야 着着戰果를 거두엇는데 다시 市街戰後 四日午後 完全히 이룬市를 占領하고 午後二時十五分 市會議事堂의 塔頂노피 王統旗를 揭하엿다 佛領에 遁入한 避難民談에依하면 政府軍機關銃隊는 戰線을 死守하고 頑强히 抵抗을 試하엿스나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大部分 戰死하엿다고 한다 政府軍이 遁走에際하야 各所에 放火하엿기때문에 午後五時半에는 이룬市는 全혀 文字그대로 一面 火海化하야 慘憺 言語에 絶하는 光景이다 夜間이되자 各處에서 市街戰이 起하야 午後七時半에는 政府軍은 全혀 이룬市를 退却하고 이룬市는 文字그대로 火焰에 싸혀 廢墟化하엿다 이룬市의 對岸 佛國領에는 避難民이 續續 流入하야 大混亂을 呈하고 잇는데 바이온二市로 부터 步兵第十八聯隊의 一個中隊約百五十名이 到着함에 及하여 겨우 治安恢復을 보게되엇다 이룬에 가까운 小邑 펜다라비아市로부터도 이미 五千名의 避難民이 佛領에 避難하야 同市는 全혀 無人의 野로 化하엿다

叛軍에對한 佛軍反擊說은虛報

【巴里五日發同盟】이룬攻防戰에서 佛國軍이 佛國領으로 부터 叛軍에 反擊을 加하엿다는 報道가 流布되고 잇는데 佛國外務省은 四日 右報道를 否定하고 如左히 聲明하엿다 佛國政府는 不干涉協約을 忠實히 嚴守하고 西班牙內亂에 對하야 嚴正中立을 期하고잇다 佛國軍이 西班牙內亂에際하야 佛國領內에 依據하야叛軍에게 攻擊을 加한다는것은 잇슬수업는 虛報로 一顧의價値도업다

獨逸도 委員會參加決定

【伯林四日發同盟】伯林駐箚英國大使는 四日午後 獨逸外務省을 訪問하고 西班牙內亂不干涉委員會의 權限에 對하야詳細說明하고 여러 가지 懇談을遂한 結果 獨逸政府도 委員會 參加를 決意하고 代表로 倫敦駐在 비스마르크 代理大使를 任命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五日或은 六日 獨逸政府는 正式受諾을 回答할것으로 보인다

牧野侍從七日入京

朝鮮今回의 風水害를 御軫念하압시는 感激한 聖旨에서 實地를 視察케하기爲하시와 御差遣하압신 牧野侍從은 七日午後三時二十分着「노조미」號로 入京할 豫定이다 同侍從은 入京即時 總督府에 至하야 南總督에게 聖旨를 傳達한後 八日京城發各地를 視察할터이다 그리고 拓務省에서 派遣한 今吉同省管理課長은 昨三日夜에 入京하야 備前屋旅館에 滯在中인데 同氏는 牧野侍從의 入京을待하야 同侍從을 隨行하야 視察할터이다

日程

天皇陛下께압서 朝鮮의 風水害視察을 爲하사 御差遣하압신 牧野侍從의 日程은 如左하다

九月七日 午前六時三十分釜山上陸、午後三時二十分入京、京畿道廳에서 聖旨御傳達、風水害狀況報告聽取

同八日 午前九時 京城發春川에 向하야 正午春川着、江原道廳에서 聖旨御傳達、午後二時同地發午後五時京城着

同九日 午前八時二十分京城發、安養을 經하야 午後七時二十二分 溫井里着 同地에서一泊

同十日 午前八時 溫井里發 自動車로 高城被害地視察後 再次 溫井里에 歸還하야 午後八時二十五分 溫井里發京城에

同十一日 午前十時五十分京城發 鳥致院을經하야 午後五時淸州着忠北道廳에서聖旨御傳達

同十二日 午前八時淸州發忠州、堤川、松面棗岩里를視察하고 午後七時水安堡着

同十三日 午前九時水安堡發淸州、鳥致院을經하야 大田에入하야 忠南道廳에서 聖旨御傳達、다시全州로向하야 午後七時全州着

同十四日 全北道廳에서 聖旨御傳達後 午前十時三十分 全州發裡里 大田經由 午後五時二十分金泉着

同十五日 午前八時金泉發 龜城面光明洞視察 午後四時十一分 大邱着 慶北道廳에서 聖旨御傳達

同十六日 午前八時四十五分大邱發三浪津視察 馬山 三千浦를 經하야 午後六時三十分晋州着

同十七日 晋州視察後午前十時三十分同地發照風丸으로釜山으로向하야慶南道廳에서 聖旨御傳達、海雲臺에서 晝食少憩、午後十一時三十分釜山發歸東、東京着은 九月二十日午前七時十分의豫定 그리고 目下 來京中인 拓務省今吉管理局長은 歸東日程을 變更하야 牧野侍從에게 隨行하기로되엇다

白頭山探險記

文明利器不及은 原始生活로滿足 ⑮

徐椿

山中第一夜의 茂峰서의 露營生活은 原始生活과 文明生活의 混合劑이엇다。天幕을 치고、懷中電燈을 使用하는 方面으로 보면 文明生活이오、생나무 가지를 잘나서 저까락을 만들며、枯木을 통채로 작어다가 덤이어 노코 화루ㅅ불을 피는 方面으로 말하면 原始人 生活을 그대로 模倣한 野蠻生活이다。

우리 一行의 露營樣式은 三種으로 갈니웟다。풀밧에다가 화루ㅅ불을 노아서 濕氣를 除去한後에 地面을 덥게 해노코 그 자리를 잘 쓸고서 그우에다가 天幕을 치는것이니 이것이 露營의 一樣式이오、다음은 그냥 맨바닥에다가 풀 또는 灌木類를 만히 뷔여다가 깔고 그우에다가 天幕을 치는것이니、이것이 露營의 또 다른 한가지 樣式이오、다음은 나무를 적어다가 움막모양으로 우선미를 지여노코 그날그날의 바람의 方向을 보아 바람 오는 方向만 蒼葉松가지 그他 灌木類로서 막어 버리고 그反對方面에는 화루ㅅ불을 노아 取溫을 하도록 된것이니 이것이 露營의 또다른 한樣式이다。天幕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馬夫와 人夫는 다 이方法으로 잠자리를 만든것이다。何如間、이 세가지 露營樣式은 各各 一長一短이 잇슬것이나 그것을 길게 말할 餘裕는 업다。다만 第三方法의 움막式露營方法은 가장 原始的이나 그안에서 實地로 자본 사람의 經驗에 依하면 그러케 하는것이 도리혀 다른 樣式보다 덥게 잘수가 잇다고한다。

隊員三十三名은 六班으로 난호여 잇고、各班班員은 日割을 따러서 所任을 各各 난호아 잇다。그러므로 隊員中의 몃몃은 只今 말한바 樣式에 依하야 天幕을 치고 잇는동안에 다른 몃몃은 밥을 짓고잇다。炊事는 飯盒을 使用하게 되엿는데 一人分식 따로따로 짓게 되엿다。一班六名이면 飯盒도 여섯개이니까 飯盒여섯개를 들고 가서 本部에서 쌀을 타다가 溪谷水에 씨서 가지고 밥을 짓는것이다。나도 試驗삼아 飯盒에 쌀을 너어 가지고 쌀 씨스려 가보앗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第一로 놀낼만한 일은 그溪谷水가 어떠케 찬든지 손을 담글수가 업다는것이다。水溫計로 재여본 裴在鎬氏의 말을 드르면 攝氏二度 (華氏三十六度六分) 라고한다。(八月十日 京城氣溫은 最高 攝氏二九度八、最低二二度三)

우리가 가지고 간 飯盒은 軍隊用飯盒인데 그飯盒은 一人一食分의 쌀을 되는 그릇이 添附되여 잇고、一人一食分의 쌀을 담고서는 밥물은 얼마나 두면 되다는 금을 그어 노흔것이다。이금에 따러서 물을 두어 가지고 꼭 가티 짓는 밥이언만 高山地帶라、氣壓이 나즌 關係도 잇고、또한 불이 화루ㅅ불이라 끌규하지 못한 關係도 잇서서 그러지는 모르나、어떤 飯盒의 밥은 설고、그러치 안흔 놈은 타고、甚하면 밋은 타면서도 우는 설고 해서 먹을수가 업는 밥이 만핫다。그러나 別數 업시 탄놈은 그냥 먹고、서른 밥은 물을 두어 다시 끄려가지고 죽비슥하게 만드러 먹엇다。

天幕도 이러케 치고 밥도 이런 모양으로 지여 먹고 나서는 화루ㅅ불에 모여 안저서 終日 비에 저즌 옷을 말리는것이 한 일이엇다。흔한 나무에 아낌업시 불을 처 뭐여노코서 六七人식 둘너 서고 안꼬 해서 雜談을 해 가면서 저즌 옷을 말리든 記憶은 가티 갓든 사람은 一生을 두고 잇지 못할만한 일인 同時에 그當場으로 보아도 볼만한 光景이엇다。

原始生活에 잇서서 第一로 고마운것은 불이다。아마 人類는 불을 發明한때부터 살기가 크게 便해젓슬것이며、恐怖의 大部分이 주럿슬것이다。深山幽谷、人跡未到處에 불을 피여 노코서 불의 効果를 생각해 보면 그偉大함을 알것이다。(一)불은 밤을 나즈로 만드러 暗黑에 따르는 恐怖를 除去해주지 안느냐?(二)불이 업스면 무엇으로 人體에 適한 飮食物을 만들수가 잇슬것이냐?(三)猛獸毒蛇의 類가 敢히 近接치못하는것도 結局은 사람을 무서워 그러는것이 아니라、불을 무서워 함이 아닐것이냐? 原始人이 불을 神化하야 火神을 爲한것도 또한 이때문일것이다。그러나 火의 發明에 依하야 人類의 體質이 退化한것도 또한 記憶을 要할 事實일것이다。

翌日出發이 이르기때문에 一行은 各各 班別에 따러서 所定의 天幕으로 자려 드러갓다。오직 警備隊에서는 宿所以外에 警備用天幕을 따로 처노코 거기 機關銃二挺을 備置하고서 番番하야 警備의 任에 當하고 잇다。終日、八十里길을 와가지고 天幕에 炊事에 만흔 勞苦를 하고나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宿直番까지 서 주는 警備員諸君에게 對해서는 이것을 쓰며 不安하고 따하게 생각하는 同時에 퍽 고맙게 생각햇다。

사람이 다 天幕으로 드러간 뒤에는 茂峰天地가 다시 原始林 그대로의 沈默으로 도라갓다。잇다금 들니는 말소리만이 宇宙의 고요함을 깨치다。말소리를 드르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렷다。(寫眞은 炊事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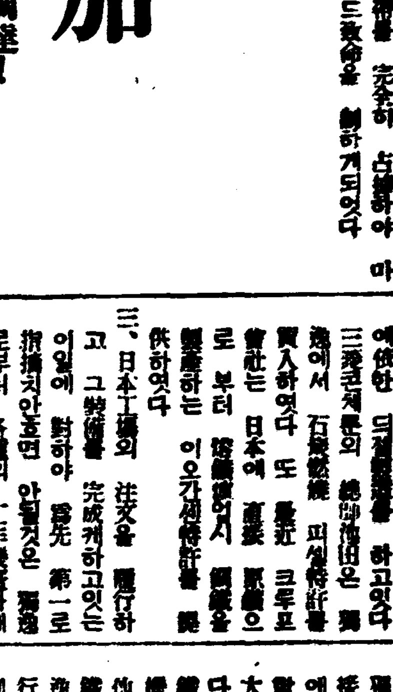
레닌主義旗幟下 統一戰線을鼓吹

二十四個條의슬로간도發表 第廿二回國際靑年데ー

【哈爾濱發】當地某機關에의 情報에 依하면 四日 第卄二回國際靑年데ー를 마저 全聯邦레ー닌共產主義靑年同盟中央委員會는 卄四個條의 슬로간을 發表하엿다 例年과가티 全世界勤勞靑年大衆의 反帝國主義 反파시즘 平和及 社會主義擁護를爲한 鬪爭을 强化하야 스탈린、보로쉬로프、모로토프、지미트로프等을 讚美하엿는데 今年度는 特히 키로프를 暗殺한 例의 反革命的트로츠키스트、지노비에프一派에對한 鬪爭을 强調하고 西班牙革命及 中國革命의 援助 新蘇聯憲法의 禮讚等 行하엿스며 從來 屢屢히 보이던 日本及 獨逸에對한 露骨的 挑戰的슬로간은 업섯다 다만 全世界파시스트諸國이 方今 戰爭準備 特히 蘇聯攻擊準備에 狂奔하고잇스므로 全世界의 革命的靑年大衆은 統一戰線을 結成하야 레닌주의 旗幟下에 果敢한 鬪爭을 行하라는 主旨를 論하엿다

八面鋒

◇로이드조ー지氏、히틀러總統을 맛나고자 獨逸을 訪問。
◇自由主義의 老將과 나치스의 首領이 맛나서 卄世紀의 危局에對한 무슨會談이 展開될고。
◇獨逸艦四萬噸을 保有하겟다고 米國이 日英兩國에 通告하리라든가。
◇條約이 썩은 새끼와가티 된 판이니、우연만한일은 通告[illegible]行으로 나아가자는잘。
◇松村書記官의 報告에依하야 外務 陸軍 海軍의 三省會議에서 成都事件方針을 決定。
◇川越大使에게 訓令이 이르게되면 軍大外交戰이 展開되겟지

ナカ井オルガン
各地에서熱狂的歡迎!! 絶對的優秀를自信!!
シレネギター・NM1號實業器 ハーモニカ ラッパ・太鼓 製造卸

(販賣進呈書目錄)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話戎五一二三番

信用잇는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店均一卸協會
大阪市東區久寶寺町二丁目 小間物ビル

眼鏡 煙草具專門製造卸
파이프·궐이련·엽연초·煙草入
(價格表送呈) (眼鏡御部商報送呈)
大阪市東區博勞町二丁目四
津田嘉助商店
電話船場四四四〇番 振替大阪二七五三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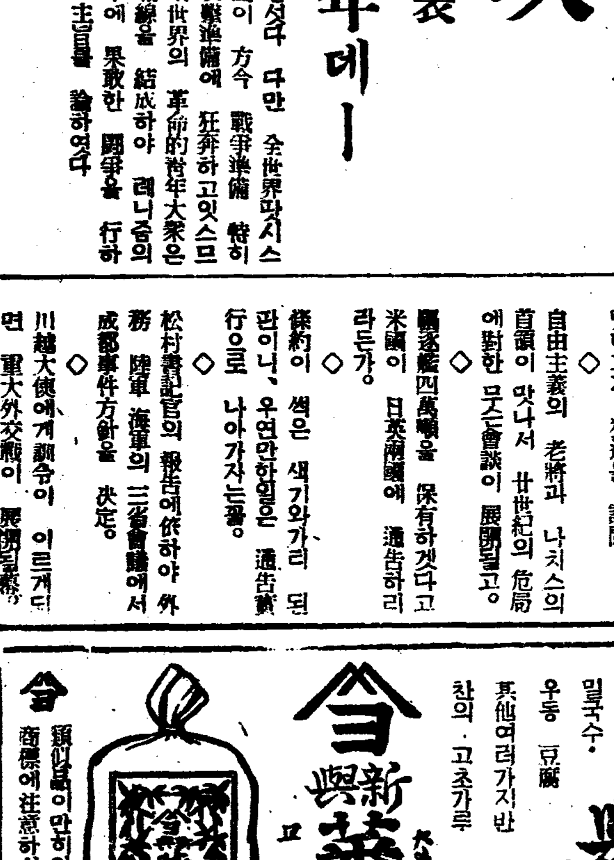
錢袋物現金問屋
(商報進呈)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一六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電話船場三六〇番 振替大阪六四三七五

고무活字
資本적은 사람이 하는 商賣
고무活字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鍛冶屋町六八
電話南二〇九番 振替大阪五九一

冬物 羅紗製品荷揃
三ツ揃 オーバ 詰衿上下
兒童黑オーバ 兒童外套
ジャンバアー 厚司 ズボン
格安品豐富하게잇사오니御來阪時에는 꼭한번 御來店하심을希望함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二十番地
現金問屋 川合貞商店
電話東五三〇八番 振替大阪六九三四五番

見本商報送呈
各種作業服
コール天長半ズボン 上下服チャンバー
團服、其他裁縫品一式
製造問屋
大阪市東區本町電停留所前
合資會社 西村直商店
電話南六二七二番 振替大阪八〇二九二番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新興 からし
冷소민·冷우동 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新與 なんきん 蕃椒粉
밀국수·우동·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山西商店 阿部本店 辻本商店 吉川商店 桑田商店 江口商店 山七商會 中山商店 重枝商店 小野本店 西村商店 德元商店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 製造本舖

露天倭幕에또暴雨 【二】

欲避無處欲死無地

□□一夜에된鰥群寡黨과天涯孤兒들□□

來日은모른다 오늘이問題

慶北災地서 洪鍾仁記

비가또 쏟아지나 더심한 것이 리재민들이다 일조에 징흙입혓스니 이몸을비바람을 어데서 피할까 죽은사람은 이왕죽엇다 하거니와 살어잇는사람이야 어떠케해서던지 살어야할것이아닌가 그려지니 당장의 이비를무엇으로 막을까 집이떠내려가고 문허젓다고해도 열에두세집이 축낫다 해도 어렵거던 아주안전한곳은 안전하다고해도 피해를입은곳치고는 열채잡고 남은것이불과한 두집내지두세집이 되는터이니그들이피난을한다면 대체어데로피난할까

◇

김천귀성면 평명동으로만 보아도 일백사십여호중에서 남은집이불과이십호이엇다 남엇다는집중에도반남아 기우러젓거나 갈물이마루우에까지올라와서 그것을치우고 사람이 거처하려고해도 여간 힘들것이아니엇다 그래고피난한다는 곤처동리의 친척이나 친고집을 차저간다고하나 그것도 한정이잇는것이지 무제한하고 사람이 거처할수도 업는것이다 그래서 하는수업서서 물길든집에 가마니나 벼집을깔고잇는등 상우에 막을치고 잇는등, 사람의 살림이라고할수업는 정상이다

◇

그런데 집도집이려니와 당장에 먹어야살지 안는가 팔동의 정상을보아도 먹을쌀이라고는 그날그끼를 끄리기가 어려웟다 쌀이라고 동리에남어잇는것은 일로헤여야 할형편이고 그래도 남엇다는것은 김홍에무치어오는쌀뿐이엇다 그나마 먹어물끼하고 흙을처내이고 쉬처낸터니 희어야할쌀이 검어케물이들어버리고 밥을지은대야 아무리물을처떼어도 쌀알이 붓지을안코 앙암이 굴어다니는것이엇다 바로천정에갓슬때에 물간쌀로지은밥을보앗다 빗스검어코 밥알은 제마금살어잇는데 냄새는그저 역하기만하엿다 부인네는 바가지에들은 그밥을들고 이것을먹다니요! 하고 더어업서서 한숨을 쉬는것이다

◇

참말 참혹하다, 그러고 먹는다는것이 군청에서 보내는쌀로 간신히 끼니를에운다고는 하나 그것이 풍족할리가업다 겸하야 당장의큰문제는 먹을물이 번번치안허서 흙물을 그대로 먹게되고 또잡자리가르습하야 모다배탈을만나는것이엇다 이런상태로 먹을것을못먹고 허둥지둥하는가운데속탈까지 만나고나니 더구나정신을 못채리고 잇는사람들은더허둥지둥하고 잇슬뿐이엇다 그러고 아득한신세를 한탄하는 말이

하는수업지, 동리를 떠나는수밧게, 아마 이동리도 어제는 아주머동(富洞)이나되지 안홀까?

고 가련한정상을 하엿시 섭어위하는것이다 하룻밤사이에 집도논밧도 엄어버리고 나니 그신세를 무어에 비길까

◇

가는곳마다 동리마다 빈손만들고 잇는그들은 장차 어떠케 날동안은 끈난하다고 해도날이 된것이가 보통몸이라면 다자엿들며 점차 정돈되면 제힘으로집을 바로잡고살림도 꾸려나갈도리를 생각할수잇지만은 이러케까지 적지가되고보니 당장살되나 어데서 죽밥을 끄리다들그것을 달게목울너길수 잇슬까그우에 어머니 아버지를 일흔아이들이며 가장을일흔 부인네들처럼 일코애들만 분통하안홀애비들 그 서러운정상을 무엇으로 말할까 그러나그들을구해주고 도와줄사람이잇다면 이땅의 동포형제가아니고 누구일까 그들은 지금그날그날의 먹을것입을것도업고 닥처오는 가을과겨울의준비는 더밀할것도 업다 그저밋고바란다면 동포의 구원이잇기를바랄뿐 손을벌리고 말도못하고 목메여울뿐이다

颱風의無軌道作戲

京畿近海를遂掩襲

仁川도被害莫大

京城市內도六五미리豪雨

【仁川支局電話】 사일밤이래로 중부조선을엄습한 태풍은기여코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다라낫다。 인천지방에 피해로는 발동선 한척이 침몰하고 세척이 침수가되고 두척이 파괴 되엿스며 범선은 세척이 침몰하고 네척이 침수되고 열척이 파괴되동시에 제일잔교는 열간이나 파궤되엿스며 안벽(岸壁)도 노피다섯자 넓히다섯간이 문허젓다。 그리고 태풍은 황해도방면으로 다라나 세력은 점차 쇠약하고 잇다는데 간밤의 인천지방최고 풍속은 초속십구미돌로부터 이십오미돌까지라고하다 어제오전 여섯시부터 오늘오전여섯시까지 각지우량은 다음과가다

▲中江鎭四六미리 ▲仁川九六미리 ▲京城六五미리 ▲全州四미리 ▲濟州島一미리 ▲雄基一四미리 ▲元山五미리 ▲秋風嶺二미리

新颱風雨處處서 또出現

고 칠백오십륙미리의 태풍이필리핀 동쪽해상에 나타난바 아직 그세력과진행방면은 자세치 안호나 역시경계할바이라한다

山淸風水害 集計

【三日現在調査】

【山淸支局特電】 산청지방의 삼일현재 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죽은사람이 일백사십이명 부상자일백팔십이명 행방불명이열두명 가옥류실이 오백이십칠호 전괴가 륙백칠십팔호 침수가팔백륙십이호 기타건축물의피해 칠백팔십팔호에 가축피해가 사십삼심칠두로 토지피해는 방금조사중이다

災地의人情佳話

九死一生의救命譚 ③

晉州에서 特派員 李鍾模

【第三話】 역시 전긔사공 정정삼군과가튼 동리에사는 량도문(梁文文)(①)이라는 청년도 집동울타고 떠나려가게 되엿는데 그동리에서 얼마 안나려가서 강가물결 사나울지 안흔곳에서 사람살리라는 녀자의소리가 나기에 그녀자의 머리를 답삭쥐여서 집동우에 올려안치엿스나 정신을 일코 어찌할줄을 몰르고잇섯다한다 그래서 그를 주물러서 긔운이 통케하야 캄캄한 밤중에 얼굴도 분간하지 못하고 작구떠나려갓다한다

◇

그리하야 몃차례나 물결을 리서가면서 그녀자의생명을 구원하기에 정신을 쳣다한다 그리하야 마츰내그이튼날 아침에 진주서 백여리(수로로)나되는 정암다리(鼎岩橋)에 가찹게되엿는데 그다리우에서 그곳청년들이 줄을 던저주므로 그녀자에게 줄을 먼저 손에 쥐여주고 그도 그줄을 쥐게되엿는데 그때에 다고갓는집은 떠나려가버리고 줄을 손에 잡은 두사람은 그다리미드로 몸뎅이가 쏠려드러가서 잠간동안은 무슨물건이 쏠려드러가튼 에매여서 끄울리고끄울리는것과가튼 경으로 이리끄울리고 저리끄울리다가 량군은 마츰내 최후의힘을다내여 그녀자를 다리우으로 미러올려노코 자긔도 그줄을붓잡고 다리우으로 달려올라가서 비로소 두목숨은 완전히 구조되엿다한다

◇

그때에 량군은 그와가티 물결속에서 자긔는 제처노코 그녀자를 살려내기 위하야 멋차례나 물에 잠겻다 떳다하여가면서 용감한 노력을하는 그광경을목격한 줄더진청년들은 하도 감격하야 그당장에서 그구조되여나온 처녀 림덕이(林德伊)(②)를 달래여 량도문군의안해가되여 백년을 해로하라고달래게되엿다

◇

그러나 랑도문과 렴덕이는정신을차리고 얼굴을서로 바로처다보니 렴덕이는 바로랑도문의아랫동리사는처녀로 전자부터 두사람은의남매로정하야 친남매나다름업시지내든터이엇스므로 그들을무정구원해주고 도한부부의약속까지하라고 권유하얏는청년들에게 만반치사하고 언제까지든지 의남매의정리를 더두터히하야 지내가겟노라 맹세하엿다한다 그리고 그두의남매는 의녕정암(宜寧鼎岩)청년들의 알선으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치료를밧고 비록폐허(廢墟)로되엿슬망정 그리운자긔들의 마을로도라왓다 한다 (사진은우로부터 량도문과 렴덕이)

義心은災地로!

이병어리와이돈을보내주!

廣昌商會도三百圓을本社에

오일오후 한시쯤 『재지(災地)』의 어린 동무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하며 시내 루상정(樓上町) 삼십사번지에 사는 어재봉(魚在鳳)(①)과 그의 외사촌되는 한긔섭(韓起燮)(②)이라는 두소년이 본사에 벙어리를 들고 와서 눈물을 먹음고 이야기하엿다 들으니 그들은 제일차수재이래 본보호외를보고 어린마음에나마 항상재지의 헐벗고굶주린 동무들의 정경을 가슴아프게생각하든남어지 이날 두소년이 자발적으로 본사를차저오게 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한긔섭군은 현재청운(淸雲)공립보통학교이년생이다

▲現金八十四錢 魚在鳳

▲現金二圓八錢 韓起燮

▲三百圓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〇九 株式會社 廣昌商會 社長 趙善用

六十餘時間中斷은

國際線의面目問題

—補助線인東海線의不完全과함께—

改良補強工事를絶叫!

【釜山】 금번의풍수해로말미아마 국제선(國際線)인 경부선(京釜線)이 약륙십시간이란 긴시간을 불통하야 국제선으로서는 물론 재해지구제사업상동맥이 단절되여 막대한지장을초래하야국제선으로일족이보지못한 대고장을내게되여 일반으로 하야금이선에 적지안흔불안을가지게되엿다 물론이선이 불통케되원인은 겨십한풍수해에잇겟지만은 이선시설불완전에도 원인된이만흘러이라한다 매년 우긔만되면 부산, 밀양(密陽)간에 바다시 고장이생기게 되고 종우심한 수해를 만나게되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잇섯서도 철도당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보강 공작을 하지 안하얏스므로 금번과 가튼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엿것이라야 일반의 불평도 크다고 한다 더구나 경부선이 불통케되면 그대신의 역할을 하게되는 동해선(東海線) 즉 부산、경주(釜山、慶州)간 경주、대구(慶州大邱)간의 선이 사철(私鐵)에서 매수한지 구개년이 경과된 오늘에도 사철그시대의 극히 불완전한선로그대로 잇스므로 이백이십일키로의 구간을 십일시간의 운전을 요하게되는 현상이며 조금 수해가 심하게되면 이역시 고장이 속출하는 추태를 연출하고잇서 금번 수해를 긔회로 각방면에서 경부선의 보강공사는물론 동해선의 개량공사를 급속히 착수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잇는데 철도당국의 태도가 주목된다고한다

各道救濟事業에

國庫補助를支給

臨時災害對策委員會서決定

총독부에서는 오일오전열시부터 제삼회의실에서 림시재해대책위원회를열고 다음과가티 협의결정하엿다한다

첫재로 응급대책에 대하야는도로의수선을 지급히하며 또각도의 응급구호사업에 대하야 국고보조를 지급하야 조성식힐것

둘재로는 도로제방사방사업등의 공사를 신속히 조성복구하게하야 피해천답의 복구를도모할것과 각종토목사업에 대하야 저리자금의 융통을도모케할것등이라한다

大和町에沙汰

사일밤부터퍼부은 폭우로 말미암아오일아침네시경 시내대화정(大和町)일정목백십일번지 소림(小林)의집겨레잇는 경성헌병대(京城憲兵隊)의작업장에서 토석(土石)이 밀려내려와서 일시는 위험한상태이엿스나 그후 비가줄든치엿슴으로 다행히 무사하다고한다

同業中央日報

五日부터當分間休刊

동업 조선중앙일보는 손긔정(孫基禎)군의 사진사건으로 근신하는태도를 표하기위하야 오일조간부터 당분간휴간하기로되엿다

郵便遞送에故障線路

全部七十四個線

人夫를使用、船便迂廻

일차이차의 수재로 말미암아 우편물 체송선로(遞送線路)의파손은 무척만하서 우편물전달에 만흔장애를、내고잇는데 체신국에서 조사한바를 보면오일현재로칠십사선로나 되다그래서 림시인부를 사용하야 운반하기도 하고 또는배ㅅ편으로 돌려서보내기도하고 종래에 우편물체송자동차가 통행하지안튼길도 자동차만 통행할수잇는길이면림시로 자동차를 부려서 수송하고잇다한다 현재파손 되여잇는 선로는 다음과 가튼데경기도에 다섯선로 강원도에 다섯선로 충청북도에 열두선로 충청남도에 열선로 전라 북도에 여섯선로 전라남도에 열여섯선로 경상북도에 열한선로 경상남도에 열네선로이다

▲京畿道＝利川 長湖院外四線
▲江原道＝春川 原州外四線
▲忠北＝忠州 平昌外十一線
▲忠南＝洪城 泰安外九線
▲全北＝全州 南原外五線
▲全南＝榮山浦 長興外十五線
▲慶北＝金泉 晉州外十線
▲慶南＝郡北 新反外十三線

朝鐵慶北線開通

東海北部線은被害의莫大로

來十五日頃이나開通

지난 일요일부터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의 수해상황을 시찰한 청수(清水) 철도국공무과장(工務課長)은 오일아침 귀임하야 그지방의 수해상황에 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피해는 어제길전(吉田)국장이 말한대로 단지개통여부가 아직 판명되지안흔 정도이다결국 통천(通川)남애(南涯)사이는 팔일쯤 개통될모양이며또 고성(高城)간성(杆城)간은 오일오전 여덜시에 개통의보고를 바덧다 외금강(外金剛)고성(高城)사이도 주야겸행으로 마련을 내고잇스나 상당히피해가 커서십일경에 개통될 모양이다

조선경북선(朝鮮慶北線) 례천(醴泉)안동(安東)사이의 불통되곳은 오일아침복구하야 안동오전일곱시오십분발 김천(金泉)행제이렬차부터 개통하엿슴으로 동선의 렬차운전은 평상시로회복하엿다

(黃金町)사정목 삼백팔번지중아(曾我)의 집에서『어머니』생활을 하는 보천시내제긔정(祭基町)일백사십칠번지의일백칠십칠호 조종히(趙鍾熙)(ㄴ)는 주인업는틈을타서 양재봉(許性曹達)을 며고 고민하는것을 일곱시반쯤되여 회사에서도라온 그주인이발견하고 곳부민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다하엿스나 드듸여 오일아침 여덜시반쯤되여 절명하엿다 그가자살한원인을들으면 약오개월전부터 전긔증아의 집에서 어멈생활을하면서 너그럽지못한 가세를 보조하여오든중 어느날 우연한긔회에 황금정(黃金町)삼정목 이백오십팔번지 송전리발관(松田理髮館)변은록(卞殷祿)(假名)하고서로알게되자 주인의눈을피하여가면서 밀회하는 그들의 연애는가속도로진행되며 밀회의긔회가거듭되자 주인의눈에 띄이여서수일전 해고의선언을밧고 마럿다 이소식을들은변은록의태도는갑작히 랭정하여감을보고 이것저것생각하다가 어린마음에 세상을비관하고 그만 자살한모양이라한다

竊盜

충남론산군(忠南論山郡) 출생 도삭국(都府國)(二〇)은 사일새벽 고양군벽제면관산리(高陽郡碧蹄面官山里) 최금석(崔今石)의 려관에서 한방에 자든 황해도연백군(黃海道延白郡)리성암(李性岩)의 팔뚝시게(時價約十五圓)를 훔처가지고 도주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여 어데론지 종적을감추고 말엇섯는데 그날오후다섯시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朝郵慶州丸坐礁

【長崎電話同盟】 장긔무선전신칙＝사일오후세시삼십오분조선우선회사 경주환(慶州丸)은장긔현대마해협서수도마이고쓰섬동편쪽암초에자초되어구조신호를발하얏다

今夜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會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七日】

運動競技

拳鬪豫想

決戰은今夜로

各階級의覇者는?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 第九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는 今五日밤으로서 終幕을告하기로되엿는데 連二日間의 波瀾重疊한熱戰을 거듭하야 決勝또는準決勝戰에남은 十八勇士는 各級의覇權을 掌握코저 最後一刻까지 奮鬪할것으로 今夜의決戰이야말로 近來稀有의 激戰이展開될것으로 豫想되나 興味의焦點인푸라이級에는 韓俊錫(青拳)君이 斷然頭角을 나타내이여 巧妙한『떡닝』으로 連覇의氣勢를보이고잇스며 빤담級엔 呂在德君(東洋)이强한『와일드』스윙』을利用하야 無難히王座를 차지할것을豫想케한다 그리고페더―級에는斯界의麒麟兒洪在浩君(青拳)이지난世界올림픽豫選에서 完全히 橋鬪選手를壓倒하면서 앗갑게올리선 그때의麒麟을 이날의 一戰으로써깨끗이씨처버리려한다 라이트級에서는 지난올림픽朝鮮豫選에서 拳豪朴龍辰(朝拳)君과堂堂히奮戰하야 一躍斯界의花形이된 平壤出身의韓龍河(東洋)君의制覇는 거의決定的이다 그밧게웰터―級에는 權亨燮君(靑拳)이優勝할것으로豫想되나 (以下朝刊續報)

페더―級 (第二回戰)

李龍圭(東拳) 棄權 朴順喆(仁川)
洪在浩(青拳) K O 康仁錫(青拳)
郭光波(東拳) 棄權 尹炳求(無屬)
鮮于燕(平壤) T K O 方容植(東拳)

間島東興蹴球來征

間島龍井市에잇는 東興學校蹴球團一行은 이번에 京城及平壤各地로 轉戰한後 歸途奉天及新京을거처 歸校할 豫定인데 間島出發은 來十日頃이라고한다

野球爭霸戰日程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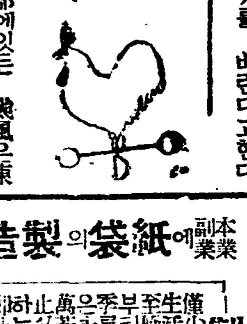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第一日은 五日부터京城球場에서 開幕할豫定이든바 이날降雨로因하야 日程을다음과가티變更하엿다한다

▲六日(第一日)午前九時入場式
A、平壤實業―大田鐵道(前十時)
B、京城府廳―全大邱(後一時)
C、清津鐵道―全全州(後四時)
▲七日(第二日)
兼二浦日鐵―釜山鐵道(後一時)
殖産銀行―A의勝者(後四時)
▲八日(第三日)
全仁川―C의勝者(後一時)
高麗俱樂部―B의勝者(後四時)
▲九日＝準決勝戰午後四時 ▲十日決勝戰午後四時

京畿道陸上豫選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京畿選手權及朝鮮神宮競技豫選會는 九月十三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者는 九月九日까지 京畿道慶地方課內同協會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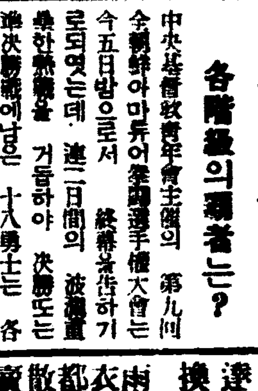
天氣予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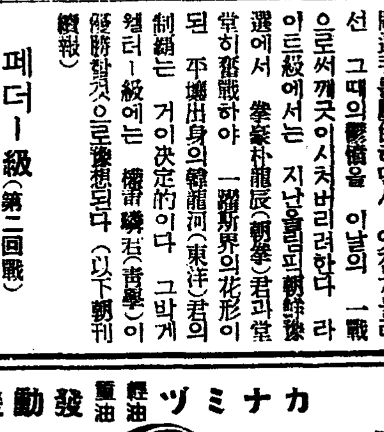
昨朝黃海西部에잇든 颱風은東北東으로 進路를 變하야 今朝는 黃海道海州附近에 上陸하엿스나 元山方面에 低氣壓이 發生하엿슴으로 其進行이 느저젓스나 今日中에는 日本海에나갈모양이다 高氣壓은日本東海上에서 關西地方에 擴大되여잇다 北滿은 大槪晴、南滿北朝鮮은曇 中部는 風雨多少强하다 南朝鮮은曇 東岸中部에는 霧 日本內地는曇明日은天氣가조라

昨日最高 二七度八
同 最低 二一度一
今朝最低 二二度一
今日正午 二三度九

誠信女學校秋期生徒募集 年齡 自十六歲至二十五歲 資格 普通學校卒業程度 人員 各學年若干名 試驗 九月十日(午後一時) 京城府慶雲町八八 (電光一九六二) 詳細案內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都散賣


鐵道用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貨物自動車用及作業用各種 紳士用各種レーンコート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府光熙門外新堂里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二〇二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カナミツ 輕油重油 發動機

農林省審査 優位入選機 電氣使用費의半額 一日、八馬力에約八十錢
石油式發動機、籾摺、精米、製粉、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豐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 二六五、六 振替釜山 三四四七
各地特約販賣店募集

리질근치약으로유명하신발명약 キヨリン 『교링』 당일복용하시면그날부터절대한효과를봅니다 二圓 五圓
日光堂藥品部 京城鍾路四丁目 振替京城一九一四番 各地有名藥店에도잇스나品切時엔本舖로註文하시오

好職業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重難한訥言도速治 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本業副業에 紙袋의製造를奬함 製造者募集 千代田商事本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朝報案內 外交員募集 履歷書持參卽接面談함 保證人二名以上을要함 但府內確實한 古市町一四 梅根商店

醫書 唐版醫書 鮮漢文醫書 俱備 醫書目錄進呈(要二錢切手) 京城府禮智町九六 杏林公司

躍進의朝鮮石油!!
揮發油 燈油 輕油 重油 機械油 其他副産品 植物性油 カーバイト タイヤー
時代의要求에順應하야 既히愛顧가多한 朝鮮石油株式會社製品을 必히 愛用하여주시옵소서 遠近을不問하시고 照會次第로 社員이 進拜하겟나이다.
◎告 一般需要家의 便宜를圖키爲하야 左記各郡主要地에販賣店을設置코저하오니商業에多年經驗이有하신有志人士는 火急히書信或은來社로來談하시면 詳細案內하겟나이다.
◎販賣店設置豫定場所
高陽郡、一山、陵谷、碧蹄里、廣壯里
楊州郡、議政府、德沼、東豆川、金谷里、磨石隅里
抱川郡、新邑里、抱川、永平、松隅里、機山里、楊岩里
加平郡、加平、淸平里、縣里
富川郡、富平邑、素砂、蛇川場、黃魚場、文鶴面、德積面
始興郡、始興、安養、軍浦場
金浦郡、金浦、通津、陽谷、陽川
京城府內各要所
朝鮮石油會社特約販賣所 鮮滿興産株式會社 京城府竹添町二丁目 電話光化門③二七三八番

◇校舍大擴張◇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十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夜)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各中學校入學又는編入學受驗準備 (學則要二錢切手)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山葉ピアノ オルガン

子女들을爲하야 반드시一臺를!
피아노 金五百圓부터
오루강 金三十圓부터
月賦案內書目錄進呈
創業後 五十年 資本金 四百萬圓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全國에特約店이有함

安岳地方紹介版（其一）

宿案이 山積한 安岳 紹介版을 내면서

安岳支局 張熙文

사람은 社會的人間生活에 共通的責任을 所持함에잇다 各個其所屬된 居住 又는 歷史上으로보아 民族이잇는同時에 各地方을따라 獎勵할바 美點이잇스며 反面에 改造할바 缺陷도 잇슬것으로안다

然故로 一地方의産業、交通、商工業、農民、名勝古蹟、人物、特히敎育問題等을 中外에紹介하야써 그地方의批判할 材料를公開하야 硏究케함은 그地方發展을爲하야 努力하는 社會報道機關인新聞社의 當然한 使命이요 役割인을 自覺하야 마지안는바이엇다

그러나 社會各方面人士及 特히私立安岳高普期成會役員諸氏의 普通的援助잇서 今日의安岳! 即一九三六年의安岳現況을 들어紹介版을 完成發行케됨은 有志及讀者諸位와함께 欣快함을 禁할수업는바이다

安岳! 이都市의文化的地位를 不斷히 向上시키고 農業이 또한 크게發達하야 아프로 朝鮮의 進步함것을 約束하는同時에 經濟實力이 充實하면서 社會事業에 着眼企圖를 볼때 오늘의 安岳의 面貌를 어느點에 잇서서는 自信으로서 자랑할수잇슬줄밋는다

그러나 安岳의 이러한發展은 그內部까지 들코볼손을 가진이는 아직도 缺陷이잇는 것이 數업시 만흠을 곳어어낼수잇는것이다

인제安岳이란 一局村都市를公正한 立場에서 正體를 해치면 過去數十年間의 安岳社會는 그간 懸案數十件이 眼前에 바도혓스나 留意도안코 利己的商業事業에만 沒頭하고 高利貸金業과小作權等을 弄絡하야서 그네들의 私腹充當을 主로하야다 그래서 個人의 富力은 如實이되엇스나 날로 쇠퇴하야 지온 安岳社會이엇다 疑獄 弄絡 陰謀等으로 동덩고 배부른그들이 每日가리일삼엇다

安岳社會의 施設이란 보잘것업고 所謂海西地方의 富邑이라 指稱을 밧고잇슴으로 活動할舞臺가 조곰니 곳곳하나 實로손부칠곳이 업섯다 故로 安岳事業은 零細함을 免치못하게되엿다 社會事業이라것이 겨우私立安新普校와 楊山幼稚園外업섯다

以上二個團體가 모다 목이마른리만큼 經營難에 허덕게 되엿고 未久하야 곳社會事業은 衰華外安岳의 事業으로 極히不振을 呈하게되어잇고 無産兒童敎育機關이든 安岳夜學學校도七個年間이나 有爲青年들의 피와땀가다녹이나리도록 흘보지안하서 그만悲運그대로閉鎖케되니 以上數件을미루워보아 有產階級그네들의 心情을 推測할수잇게되엇다

故로 對外에 安岳人士란 存在조차 問題가되엇더니 一九三五年末期에이르러 破天的全朝鮮社會에 一大新聞을준듯!-소가잇섯스니 그것이 世間에 所謂敎育의烽火를 들엇다고하는 私立安岳高普期成이란것이엇다 이엇마나장하고 偉大한事業을 파혓슴이랴! 私立安岳高普期成會의事業은 民族的자랑이고 朝鮮敎育史上에 엇지못할記錄을지어잇다 그리고 最近十餘年間을두고 朝鮮에 잇는事業가운데 그貴重찾기어려울만한 高貴한事業이다 勿論過去에도 社會事業을하야 物質的으로 犧牲하면서 財產을提供한 篤志家가 엇섯스리라고는잇지안코다 이는 흔히 旣成團體의 未曾有에當하기爲한 個人單獨事業의又는 行爲에 不過하든것이다

그러나 이事業만은 朝鮮에잇서 흔히 보기어려운 現象그대로 多數의 一致協力으로 組織創立된 偉大한事業이니 이는安岳만이아니라 全朝鮮이 다가리 기뻐할그것이다

누구나 安岳을 말할때에는 安岳高普를 聯想케되고 旅行中에서라도 安岳에서 살응 말할때는 먼저 安岳高普를 뭇게되엇스니 벌서筆者의 새삼스런 論이 아니라도 朝鮮人이 다가리 祝福하면서 企待하고 잇슬일수잇다 이제 回顧하건대! 只今으로부터 約三十餘年前인 丁未年에 敎育會를 楊山中學校는 當時 安岳社會로도 첫事業이엇고 全朝鮮敎育界에도 唯一한機關이엇으로 社會施設이 先驅되엇고 各界人物이 集中되엇다 故로 安岳을 말할때는 巨頭者有志들이 楊山中學校를 文化的로서 實業敎育을 進行에 들어서도及 堅固한 不撓不屈한 人物이엇허 老人에게 이르기까지 思想고 一時는 云하야 어려운이로칭 安明根事件이 發生하는中 메마時楊山中學校難關과 役員全部가 一系統이라는것으로 一人으 남기지안코 全部 押收하야서는 事件이든十五年間을 監獄살니러 服役케하고 二、三年式은 모다刑을박게되엇스니 욕자이를양때는 路上彷徨을 免치못하게되고 예만한人材는 되서리에 다시금추어슬수업스니 前途에서 찾은 機관그마처무러지고야 말엇다 그러서 모다 無盡藏함으로 不斷하고 다만 各其生活問題만 解決하기에 沒頭하야 非人間的手段으로라도 個人實力만을 主로하고 社會는 顧念치안케되엇다 그러나 한갓 筆者부터도 安心함바는 安岳人의 心思와 아름다운人格及意志力은 번치안어서 언제나 期會만 엿보는것이니 於是乎安岳의 第一盛事이고 懸案이든 安岳高普가 四十日未滿에 六十萬圓이란 巨金을 問題업시 募集되엇다

보라! 이것을보아 安岳人이 過去의 活動함바와 앞으로의事業計劃을 짐작할수 잇지안흔가 安岳은 다른니 實로 衷心으로 感謝함을 마지안는바이다

이는 財團對만이 아니라 全安岳에비롯하야 全朝鮮에 밋치기까지 엇지못할 大事業임을再言한다

其外 安岳地方으로서 또한念先務가 수어지마흘나 大體로 安岳發展에는 第一高普期成인데이것이 完成되는대로 其他問題는 漸次로 施設될것으로 밋으면서 곳經濟로는 問題가 鐵道期成이다 筆者도 數次나 이問題로하야 直接間接으로 當面해보앗고 鐵道府當局員에도 參加해보앗는데 信川溫泉線만은二十年前부터 豫定線이엇슴으로 의례히 될것으로 미덧스나 二十年後인 今日까지 何等의氣運이 보이지안코 또한 當局者들이 等閑한듯시퍼 鐵道期成會를 組織하고多數한費用을들여서數十餘次나 道、總督府 朝鐵會社에 陳情을햇스나 그때에는 조홈말로 물려보내고는 그대로마다 安岳의交通을 高喊者로서도 關心이 되다면 時急이 鐵道完成을 期待해서 文明利器及 文化發達을 直接入하야 地方發展에 任하여야할것이다

그다음에는 上水道問題이다 요지음 當局에서 猛烈히 豫防에 努力하는 肺結核防止運動이엇다 肺結核은 먼저 身體關係도 업는것이 아니다 實際上으로보아 入五%以上이 地方의 水土關係이라고한다

安岳地方의 西으로上流인 九月山下 信川甲面近方과 北으로 銀紅面一帶에는 水土가 원체 납버서 그地方에 居住하는 住民은 大槪가 所謂 土疾病에 걸리나 이것이即「지쓰도마」그것이다 또安岳附近에도 邑內 井戶가 約數百餘處인데 飮料에 適當한곳은 不過二、三處이다 그러면 二千餘戶에 一萬名以上이 居住하는 大都市에 二三個井戶의 水量으로는 도저히 當할수업슴으로 不適한물을 飮料水로 代用케 됨 安岳이다 近地方에 比해보면 靑年死亡率이 絶對多數를 點하는데 그중 四割가량은 肺結核으로 죽어간다 이런 悲慘한 現狀이로되 이에는[illegible]今것 何等의對策이업고 事業이라는것은 宣傳보다 實行이 第一이어늘 肺結核防止의 포쓰타와 마-크가 全朝鮮坊坊谷谷에 떠져잇스나 實地에 防止工作한바를 볼수업스니 肺結核菌이포쓰타를보고앗지「부작」가리 생각하야무서워다라날것지안타

보라! 一萬名以上이 居住하는 安岳에 아죽것 上水道가업다는것은 當局者의 責任이 아닐가한다 其外에도 市街에 設置해야마할것이 二가아니고 下水道不完全으로 해마다 洪水를 不免하는등 宿案懸案이 非一非再일것이다 모릉죽이 以上數件가 現下安岳發展에 第一緊要한것이니 諸問題가 解決되기까지는全郡民이 總動員하야 必死的으로 努力을 不辭할진저!!

우리는 安岳의躍進을 자랑한과同時에 이러한 缺點을 수사로 批判하지 안허서는 안될다 누가 제故庄을 사랑하지안호랴 故로 제故庄의發展을 깃뻐하며 努力하는것이니 筆者스스로 이地方紹介版의 評論이 社會 여化하야 어떤 所得이 잇다면 그것이 實로 本意일것이다

×

끗흐로 이紹介版을 내는데 여러가지로 援助해주신분에게 滿腔의感謝를 禁치못하면서 不充分한點이 만흠을 衷心으로 謝하는바이다

黃海道의 心臟地帶 沃野廣袤六萬町步

十萬住民九割以上이 農業

實로 朝鮮的의 寶庫!

海西의名邑! 安岳은 黃海道心臟地帶에 位置하고 一般物色이 明朗하야 文字그대로 安岳이다 朝鮮第二位 大平野가 또한 載寧 信川 남무리벌과 安岳벌이 合치 되어잇스니 金波 萬頃의 沃野千里와 廣袤六萬町步가 實로 安岳은 朝鮮의 寶庫이다 九圓面에 一百十三里를 包擁하고 全郡에十萬人이 居住하는大郡이면서 農業을 主로하야 一般生活이 남에게 뒤떠러지지안는다 交通이나 自動車便이 多少의便宜를 돕고잇스며 安岳의 商界는 純全히朝鮮人이 압도하고잇서서 實로 實力이充分하고 特產物이 米穀이어서 九割以上이 農業을 主로하고잇슴으로模範農村都市로서 遜色이업다 名勝古蹟으로는 五百餘年의 긴歷史를가진 貝葉寺가 絶勝한 山谷에 잇고 高井寺 修道庵等이 잇서서 盛夏의 避暑地로 有名하다 一般社會施設이 集存해잇슴으로서 大都市에 떠러지지안코 압프로의 安岳發展上 計畫되는일이 만흠으로 向上될安岳을 對外에 紹介할도 徒勞가 안일가한다

沿革

本郡은 三國時代(新羅、百濟、高句麗)의 安岳縣으로서 一名은 楊岳이라고도 稱하얏스나 距今九百十七年前인 高麗顯宗九年에 이르러서는 縣을 廢하고 豊川에 屬하얏스며 睿宗九年(距今八百二十年)에 監務를두고 忠穆王四年(距今五百八十六年)戊子八月門下贊成大事者(當時官職으로 大臣地位의職)黃順은 妻의鄕里인 因緣으로 王에게 奏請하야 安岳郡으로 昇進시키고 知、郡守를 置하얏다

李朝世祖十年官制를 改正하야 郡守로 改稱하고 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官制에 依하야 從來의 區域으로서 安岳郡이라 稱한것이다

地勢

本郡은 黃海道西北端에 位置하고北은 大同江을隔하야 (平安南道에、東은 黃州、鳳山、載寧三郡에 南은 信川西는 殷栗郡에 接하얏스니 西南의 地勢는高고 東北에 向하야는 漸次로低하야 九月山의 餘波가되어서 起伏되여잇는 安岳、銀紅 大杏의三面은 山間地帶에 屬하얏고 西河、安谷兩面은 山野相半하얏는데 其他西江及載寧江의 流域에잇는 龍順、大遠、文山及龍門面은 죠타低地가되어 往古에는 芦葦가만하야 沼澤地가되어잇섯는데 換近차츰차츰開拓에着手하야 只今에는 重要한 米產地가되어잇다

熱狂的敎育熱!!

發起한지四十日未滿에 六十萬圓財團을造成

壯哉!安高普期成會

希望과 更生을 約束하는 敎育! 그것이 新朝鮮建設의 가장 重要한 基礎工作임은 이제 새삼스러이 贅說할것도업다. 敎育그것을 爲하야 犧牲한半島社會에 烽火를 들엇스니 이것이 即 私立安岳高普期成會이다 數十年以後 向學熱이 高潮되어 敎育事業에 自進寄附로 物質的犧牲者도 多數하얏다 그러나 距今數十年間에는 全然事業을 볼수업다해도 過言이아니엇다 勿論그는 過去數十年前 大韓事業 楊山中學校때문에 疲弊되고 不時事件에 되서리를마젓음이지 敎育事業을 비롯하야 社會運動이란 하나를 볼수업섯다

이는 安岳만이아니고 朝鮮社會가 다 沈滯해잇섯음은 다아는바인데 安岳의巨族 金氏門中 金庸鼎、金庸震、金鴻亮 三氏가 一萬三千萬圓이란 巨財를 喜捨함을 비롯하야 安岳의 宿望이든 私立安岳高普期成會를 發上에 내어놋케된 그것이다

이는 純全히 高普敎育그것만이 안이고 업서질줄만 아랏든 朝鮮의魂을 發見할수잇스며 民族的으로 成功됨 그事業을爲하야 勝事다기 認識할수잇게업다 이에 安岳全人士는 熱誠에넘치 저마다 萬丈의氣焰을 吐하면서 너두나두 赤誠그대로寄捨케되엿스니 뒤니어 金秉寬全武吉 崔亨基 三氏가 또한各一萬圓式을 自進寄捨하고 그다음 崔昌林氏부터 二萬圓 그리고安岳의 巨富金應石 元擇壽 兩氏가 各三萬圓式을 喜捨하야 邑村間너도나도 自進寄捨者로만 一千八百餘名에 達하얏는데 金額으로는 寫下一圓으로 부터 十萬圓까지의 喜捨하는 篤志家가 잇기까지의 未誠그대로 熱狂的敎育熱그것이다

다시금 安岳高普期成會發會式을 去二月二十六日에 擧行한以後 四十日未滿에 六十萬圓의喜捨金이 모히엇다는것은 己未年以後 初有의 敎育熱이면서盛事임을 마지안엇다

安岳의 中等校期成會看板이아마도 세번재 달니게 되엇다第一次에는 바로 庚申年頃에有志李文龍 韓應祚 田承根 金杜洙外 諸氏가 發起하야 安岳中學校期成會란 看板을 世上에 내어 노코 沈滯해잇는 安岳社會에 一波紋을 일우고 熱! 이란文字 그대로 全市民이 總動員하야 個別財產에 十分의一을 밧처서 完成하기까지 全力을 傾注햇스나 有產階級에서 不應함으로 不得已中止의悲運을밧엇고 其後또한 第二次 中學期成會란 看板이 世上에 나오게되니 이는 純全히 外地에서 留學하는 學生團體에서 스타! 를햇는데이는 單純히 勇! 文字그대로 무엇이나 하면 된다는데에서 數年間 가진애를 다 태우고 活動을햇스나 이는 靑年들의 理想과 夢想에 不過햇스니 第一二次의 活躍이 熱! 勇! 그두가지가 不徹底햇든것은 全然안이다 時期問題이엇고 그때 有產階級諸氏의 腹案이잇서서 不應햇든것이나 안일가한다

그리다가 今年에일으러 安岳의宿望이든 高普問題를 解決할時期가 왓다

第三次 期成會는 熱、勇! 金! 세가지가 兼存한것이다

所謂 現世를 資本主義全盛時代이라서 資本이잇서야 된다고한다그러나 이번 安岳高普期成會만은 純全히 熱로 引導되어勇이나왓고 나중에 金! 이나오게 되모양이다 過去 事業中에는 個人單獨의 事業 又는行爲에 不過한 資本主義的色彩의事業이엇섯스나 이는 現世에서條히 어데보기드믄 稀事로 斷然一致協力으로 財團完成을 보게되엇다 그래서 認可願을 드린지도 벌서 四五個月에 頁하나 아즉 何等의 消息이 업스니安岳 아니 黃海道의 發展을 當局者가 念慮한다면 即時로 書類를 認可할것이다

高等普校를緖頭로 三大事業計畫

女高、大衆病院設立等

金鴻亮氏 談

히 民心에依하야 敎育施設을도아죽이 應當할바일것이다

安岳은 他地方에 比하야 交通이 問題이어서 文化文明이自由롭지못하게 되곳이고 發展上宿案이 너무 만어서 엇지할수업는곳인데 安岳高普만은 天運이엇던지 民間의赤誠 即돈들에 어린六十萬圓이라것이 단번에成立됨은 朝鮮敎育史上에 처번의 偉大한 事業이고 半島社會의더업는 慶事일것이다 이러한締眞한 人民의良心에서 우러난敎育熱그대로 時急認可가 되면 衷心으로 感謝치안홀수 업슬것이다 勿論 高普期成會委員全般은 高普問題를 樂觀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敎育施設이 不足한現下朝鮮社會에 이르러 不充分한 敎育機關을 爲政者로서 自進設立해야할것인데도 不拘하고 民間에서 充分한 高普財團六十萬圓을 모아놋코 許可만 해달라함에는 아무런 問題가 업슬것으로 밋는데 財團이 不足하면 中間不祥事를 念慮하겟스나 一學級에 每年 三千圓 쓰는 高普가 京鄕各地에도 稀有할인데 安岳高普만은 四千五百圓式이豫算되어 잇스면서 六十萬圓이란 財團이 現金으로 完成되어잇는이 文化都市가 되어그業績이빗이나면 黃海道를비롯하야 朝鮮이 빗날것이니 朝鮮鄕里 安岳에 그가튼 施設이되어서 向上朝鮮에 先驅者가되는것도 一般이 等閑視할수업슬것이다

安岳高普 成不成은 朝鮮敎育界의 振不振으로 그의 影響이 밋치는바가만허 이는 社會的要望이다 要컨대 어서속히 許可되어 不遠校舍新築의 着手를보면서 明春四月一日 新學期에 開校케됨을 安岳郡民 아니 黃海道를 비롯하야 朝鮮全社會가가티 깃버할을 마지안흘것이다 우리社會는 安岳高普期成을 擧手祝福하는바이다

朝鮮人으로서의 남다른 抱負와 腹案을가지고 武官的 偉大한 心境을 所有한 金鴻亮氏는 언제나 文化朝鮮을 만들기까지의 全力을 傾注하고잇다

다시금 過去朝鮮에 잇서서도敎育機關으로서 奉仕하얏다 當時의 中學校란것은 只今專門校以上 貴하든것을 海西地方一隅인 安岳에 楊山中學校를 設立하고 師範科 小學部等으로 만흔 功績을내엇다 方今도 金氏는 日常 文化朝鮮을 만들기 爲하야 先着手로 敎育事業을 完成하고그다음 未備한機關을 完成함으로써 安岳을 文化集中都市로 만들게 되면 [illegible] 全朝鮮社會에미치는 그影響이 偉大할것을 計劃하고잇다 海西敎育界의 大恩人이고 今番 安岳高普期成의 慈父인 金鴻亮氏는日常 그의 抱負와 腹案이 이러하다

×

向上朝鮮에 잇서서 第一로遺憾으로생각하는것은 敎育機關의 不足이다 幼稚、小、中、專、大等의 學校가 잇스나 其中한나가充分한 機關이업다언제나入學難! 入學難하야 어린少年들의 心神을 괴롭게하는데 其中 더욱 甚한것이 中等學校이다 十二三

의 生覺은 언제나 此點이 遺憾千萬이다 무엇보다도 中學時代 即十八九歲 乃至 二十歲까지는 父母슬하에서 敎育시키고 專門、大學은 外地 아니 外國이 더욱 어떠한點으로 보아 나올지모른다 어쩨든 中學時代는 제故鄕이아니면 近方 極히 각가운地方으로 보내는것이 兒童敎育上 父母로서 一心得일것이다 現在安岳郡內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해마다 外地로 遊學하는 生徒가 四十名以上 五十名가량인데 其外 志願者는 不知其數이다 그러나 半以上이繼續지를 못하는 現狀이다 이것이 前述한바 實例가 들어나는것이다 다시금 中間에 別別故障도 만어다、이에 根本問題가 安岳에도 中等機關이 업슴으로 그러한 쓰라린맛을 보게되고經濟로나 兒童敎育上 大經驗을 보게되엿다 故로 去二月二十六日의 擧事가 即以上複雜한問題를 解決하고 이것을 爲始하야 安岳을 文化都市만들이 吾等의 責任이 아닐가한다

發起한 安岳高普問題는 그저간 六十萬圓의 財團도 完成되엇고 當局者諸氏도 모다 好意를 가짐으로 勿論 不遠해서 認可도 되리라고 밋는데 다시금 安岳社會를 文化集中都市를 만들에 男子高普 一로만은 問題도되지안는다 이는 爲先 事業의 허두이고 뒤니어서 一百五十萬圓의 財團을 만들어 六十萬圓은 男子高普! 四十萬圓은 女子高普! 四十萬圓은 大衆病院! 남어지 十萬圓으로는 圖書館! 을 만들어서 不備한點을 全然없시하야 文化集中都市됨에 조금도 遜色이업시 할모양이다 이는 昨年가튼 豊年만繼續하면 不遠四五年內 完成하리라고본다 故로 安岳高普의서두가 이만큼 重大한故로 一般의企待는 勿論 當任한吾等도 조처에勞力中이면서 모저安岳高普期成에 必死의 勞力을 不辭할作定이다

◇寫眞…金鴻亮氏

安岳의 實踐的偉人

安高에 十萬圓喜捨한 金庸震氏

事業이 어떠하니 어떠한方法이 第一이니 하는理論을 떠나서 銳敏한理想과 計畫을세우고는 그主志대로 물、불을 가리지안코 그장하고 구든意志를實成하기까지 猛鬪하는 老鍊한鬪士이다 바로至今으로부터 八九年前에 朝鮮人으로서 廣闊한畓田을 開墾하면서 巨財를投財하야 成功한志士는 아마도全朝鮮을通하야 稀有한일일것이다 故로 安岳水組가 創設되면서 水組區內土地를 一坪七八十錢式하든것을 二三十錢의 散賣케되고 世間이 고약해서 當時에 朝鮮人이所有했든 土地를 多數히賣渡되엇다 然이나 한번놀래보고 朝鮮人으로 大農場들등은 海西地方의模範人으로 最初에는 多少의犧牲이잇섯스나 굿게지키고 잇슨結果로 今日에 이르러서는 全朝鮮에 듬으는大農場을만들게되고 五人合名會社로 四百萬圓의 資本이되엇다 金氏는 장한人物이다 安新普校財團法人成立時에도 一萬圓以上의土地를喜捨하고 今日에 安岳高普에 十萬圓이란 巨金을喜捨햇스니 氏는참으로安岳을 代表한偉大한人物이고 理論보다 實踐이 압스는 사람이니 安岳은 勿論 近邑에서는 追仰하기 마지안는 篤志人이다 氏는 安岳高普로해서 日夜勞力을 곤치지안으면서 매우 이에 全力을 기우리고잇다 氏는健康하시어 압으로도 좀더 安岳社會를 爲하야 일해주시기 바란다

◇寫眞…金庸震氏

高普期成에 慈父

十萬圓喜捨한 金庸鼎氏

朝鮮唯一의 大事業 金[illegible]株主의一人으로서 金鴻亮氏의 叔父인 金庸鼎氏 今般 安岳高普期成會에 十萬圓의 巨大한 金額을 喜捨하고 生前 高普成立과 同時에 校門으로 兒童等이 出入光景을 보겟다는것으로 하루를 促進시킨그로서 高普期成에 더욱 全力을 다하다 老人이되고 압날을念慮하야 하로밧비 促進한다 氏는 日常安岳發展을 念慮하고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多大한 犧牲을하얏스며 子弟의敎育은 勿論 安岳普校財團法人時에도 相當한喜捨가 잇섯고 安岳社會事業에는 한가지 빼보지안엇다 압호로도 健康하야 남어지 事業을 더욱發力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다

◇寫眞…金庸鼎氏

高普校라야 만할 몃가지重要理由

元楨杓氏談

우리安岳사람들은 누구를 勿論하고 高普期成에對한 宿望을速히 達成하기를 喜悅로 苦待하고 잇다 簡單하게 말하자면 安岳에잇서서 特히高普가 더必要한 것은 몃가지 理由가잇다 첫재는商業都市가 아닌이때에 商工校의 必要를늣기지 아니함이요 둘재는 農業地帶가아닌 此郡에 農校의 必要도늣기지아니함이아니라 況且隣接地 沙里院과 信川에元殺農校가 二校나 잇슴이요 셋재는 此處人士들의 敎育에對한 希望은 簡易實業에 잇지아니하고 專門知識을 要求함에는 他道에比하야 高普設置가 極히貧弱하야 海州에 設置된公立公普校 오즉 一個所뿐임으로 安岳에서 高普를設置하는것이 安岳高普를 設立하는것이 아니요 도리여 黃海道의 貧弱한 高普機關을 補充시키는同時에 따라서全朝鮮內에 不足한 高普에對한補助策에 不外하다고 想覺하고잇다 그런故로 以上몃가지理由로因하야 高普期成에 絶對必要를切實히늣기게되여 安岳全郡住民들의異口同聲으로부르짓는소래는오죽 高普期成에 잇슬뿐이요 또한高普를設立하고經營해나갈수잇는充分한 豫算과 六十萬圓以上의 巨金이 集中되어잇고 高敎準備가 完成되어잇다 한가지 懸望하는것은 當局의充分한 諒解와 速히認可하여주기를 바라고 잇다 安岳高普選校을 期待하는 것은 安岳만이아니고 他郡에서도 또는 全朝鮮에서도 다가티 要望하고 잇스며 全朝鮮人의關心이 安岳에 集中되고잇다 그런故로 이問題의 成不成의 時期가 不遠한將來에잇는것을 豫見하면서 다가티期待하고잇는 우리同胞兄弟에게 此事實을告하는바이다

社會的名望家

期成會副會長 金秉寬氏

安岳高普期成會 副會長 金秉寬氏는 安岳社會의 名聲이 놉흔은 더말할必要을 늣기지 안는다 다시금 今般高普事件에 잇서서도 自進一萬圓也를 喜捨하기에조금도 주저치안엇고 自身이나아가 副會長의 役割을하기에 못지지안엇서 그는 社會的德望이 놉흔人物이다 自手成家로 社會事業에 하나도 빠저보지 안엇고 아프로도 偉大한抱負를 가지고 잇스니 一般의企待가크다

天惠的藥水 溫泉과冷泉

安岳郡은 비록 名勝古蹟은 稀少하나 그러나 天然的惠澤을 남기로는 朝鮮第一일것이다

더욱이 溫泉이란곳이 全朝鮮을 通하야 不過數十處일것인데 安岳만은 溫泉과 冷泉이 具備되어잇다 春秋冬三節에는 安岳溫泉으로! 찌는듯 더위에는 西河面 椒井冷泉으로! 이가리 大自然의 惠澤을 납고잇는것이다 四時를 通하야 浴客、病客이 無慮數萬名以上에 日常連해서 混雜狀態를 일우고잇는데 이제 個別로 紹介를하면 이러하다

◇…安岳溫泉

安岳溫泉은 安岳邑으로부터 約三里北으로 向하면 高南山이란 놉흔산이 가로막혀잇는 小平野에 約一百三十餘戶의 小邑으로 되어잇고 日常溫泉水에서 나는 김이 마치 구름모양으로 全邑을 싸고 돌아 얼는 보면 구름속에 싸인 어떤仙境이나 아닌가하는 疑心을 하리만큼되어 잇다 이곳이 安岳至寶의 安岳溫泉이다 이는 距今五百年前 一農夫가 偶然히 發見케 되여서 우물가리 파고 겨울지울때에는 그溫泉으로 沐浴도하고 飮料水에 써오드니 約百餘年前부터 洞民들이 小資金을 出資하야 草家로아모려케나 建築하고 浴客을 吸收하더니 기자 病者가日增하얏다 故로洞民들이 溫泉組合이란 團體를만들고 組合經營으로하게되자 日增하는 浴客을 收容키에 不足하고溫泉市發展上 必要한것이라고보아 銀江面當局에서 引受하야 大正十四年부터 面直營으로햇는데 浴湯을 一萬圓의工事費를 들여 純洋式으로 압신잇게 新築하고 浴客의 便宜를 도웁기 爲하야 自動車가 一日 五回나 往復케만들엇다 溫泉市內에는朝鮮人經營의 旅館及料亭이 五六處이고 日本內地人經營의 旅館料亭이 또한 數處잇서서 外地에서 오는浴客의 便宜를 圖하고잇다 商店 病院 金融組合面事務所 公普校 警察官駐在所 理髮所 公園 郵便所等의 重要機關이 所在하야 一般의 便宜를 더욱 도아주고 郵便所取扱所에서는 電報電話도 할수잇서서溫泉地帶로 이만큼 充分한 施設을 가진곳이드물것이다 景致로보아도 뒷산에 樹木이 鬱蒼하고 山岳이美麗하야 避暑地로도 有名한곳인데 溫泉의 泉質은 炭酸「카르리아」性이잇서서 皮膚、胃腸 婦人病 其他 效果를어든者!不知其數로 安岳邑이안이라 黃海道의至寶이다 이제 그性分을分析하면 다음과갓다

◇…椒井冷泉

무더운여름에 事業으로 시달넌 그네들은 서늘한그늘로 얼은 깁흔山谷으로!또는 洋洋한 海邊으로 避暑의 길을 떠나다 그러나 安岳郡西江面椒井에는天然的으로된 避暑地가잇스니 이는 冷泉地帶인 關係이다 椒井市는 安岳邑으로부터 北方 約七里 가량에 격해잇는데 이冷泉도 距今 四百餘年前 發見로서 이는 全朝鮮에 稀有한鑛泉이다 湧出量이 자못 豊富하고 泉質이 土類炭酸泉으로서多少量白石灰의 맛이잇슴으로 淸涼하고 病한體質이 反應이잇서 諸般皮膚及 胃腸病 全身病에가장 特效가잇스니 이는그效果를 어든實例가 만라 浴客은 예전에는 別로히 設備가업서서 우물을 파고 그가온데 들어가서 沐浴을햇는데 不便하기짝이업서서 그저간 이問題이든것을 面에서 着手하야 西河面新基里에사는 元老愛氏의 寄附를어더 세멘트洋式으로 浴湯을 宏壯하게 新築되어잇다 泉水가 매우 차서 (三三分을 繼續沐浴할수가업스리만큼 지독하고 旅舘及料亭施設이잇서서 물맛이사이다맛과 갓다 椒井冷泉에도 諸般施設이 完備되어잇슴으로 浴客에게 便利도록되어잇다

郡內에有數한(私立)各初等敎育機關

大恩人을가진 明進學校

設立者柳明徠氏

全朝鮮을 通하야 敎育機關을 單獨으로 經營한다는것은 매우 드믄일이다―都市地帶도 아닌 安岳郡安谷面鶴浦里에 所在한明進學校는 柳明徠氏의 單獨經營으로 그類例를 어데보수업슬것이다 現下朝鮮社會에 잇서서敎育이라것은 以上업는 大事業인데 이柳氏는 明進學校의 恩人뿐이아니라 海西敎育界에 업지못할 貢獻者일것이다 同校는大正七年四月에 建坪二十坪의 초가를짓고 書堂으로 始作되엇이 同校의 前身이엇다 敎師一人으로 兒童二十餘名을 모아놋코漢文及朝鮮語를 爲始하얏는데 大正九年에 좀데 一新케하고 그다음大正十一年에 新校舍를 建築하고 大正十三年六月에 四年制의認可를 어덧다 그후日增하는 生徒는 數百名에 達하야昭和四年에이르러 六年制로 延長하얏다 至今에는 四千九百七十坪의校基地와 三百坪에近한 敎室 一萬圓以上의 基本財產及四萬數千坪의 土地等 實로 普通學校로는 絶對遜色이업는 完全한學校를만들기위하야 勞力그대로柳氏單獨喜捨이다經常費가五千一百五十圓인데 私立普通學校로昇格運動에 猛活動이다 至今부터도 柳氏가 土地를 사서는 學校名으로해서는 압으로 財團法人成立에 準備工作을 하고잇다

今年에 特히 施設할件

一、事務室增築 二、學級增設 三、運動場及運動具擴充 四、敎員增員 五、校用井新設

一、學級 五學級

二、兒童 男、二九八名 女、三八名 合計三百三十六名

三、卒業生數 男、一五三人 女一〇名 合計 一百六十三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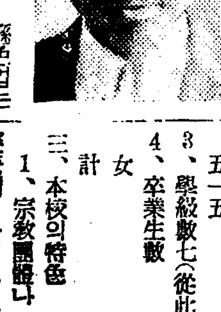
◇現職員

設立者 柳明徠 校長 李曉雨

敎員 崔秉鎬 柳鳳祥 金昌植 外一人

紀念銅像建立

安谷明進學校 예등 會사이에 소사잇는것이 언제나 明進學校의 守護神이되어 잇는 柳明徠氏의 銅像이다 郡會地에서도 보기듬은 安岳의敎育家요 海西地方의 듬은 篤志家 [illegible]柳明徠氏에게 銅像을 드리지 안흘수 업섯다 故로 同卒業生一同과 有志數百名의 發起로 工事費 三千四百餘圓을 드려서 滿色업는 全身銅像을만들어서 今年四月十一日校庭에서 盛大한 除幕式과 가티 世上에 나왓다 언제나 明進學校를 爲하야 生覺하는것가티서잇다今年五十歲의 장정이다



◇寫眞…設立者 柳明徠氏銅像

敎育界의 標石 安新普校

邑內中央地帶三千餘坪의基地우에 屹立하야 安岳社會의 聽後을길러내는 十二萬圓財團法人으로 內外施設을完備한 安新普通學校는 安岳社會의 文化向上을 리ー드하는總本山格으로 道內에 名聲이赫赫할뿐아니라 學校의校風과其實的레벨로보아 全朝鮮初等敎育界의 比類가 드믄新界의 標石임을 斷言하야 마지안커니와 이제該校의 陣容을 一瞥하기로하자.

一、沿革大要

◆距今三十五年前 明治三十六年創立。

◆同四十一年八月十日舊韓國學部大臣으로부터 認可를受함。

◆大正十一年三月二十四日六年制의認可를得함

◆同十四年四月六日普通學校로組織을變更함。

◆昭和十一年十二月十日財團法人認可를受함(總財產十二萬圓)

◆昭和十一年四月學級增設(十二學級)

二、學事槪要

1、職員數男五女三計八

2、兒童數男三四八 女一六七 計五一五

3、學級數七(從此十二學級實現)

4、卒業生數 男四九三 女 一九一 計 六八四

三、本校의特色

1、宗敎團體나 어느 個人의 經營이 아니요 安岳有志全般의 經營으로 財團法人이 完成됨

2、邑內中流家庭以上의 兒童이 入學하므로 中堅家庭兒童이 多數임

唯一의模範校 安岳公普

距今二十九年前인 明治四十一年七月一日 創立開校한 安岳公立普校는 大正五年四月에 四學級을 編成하엿고 大正九年四月 六學年制로 延長되엇다 그리고 日增하는 生徒及校勢는 大正十二年四月에 女子部도 六年으로 延長하고 昭和二年九月에 運動場을 擴張하야 相當한進步를보앗다 一時는 年[illegible]을 爲하야 [illegible] 科의 卒業生을 本[illegible] 키는等 文[illegible]을 爲하야 가진 예를 다쓰고 昭和十年八月에 家事室도 新築하지 [illegible] 職業校로 唯一한 敎育機關이엇다 學校林入[illegible]餘坪이고 [illegible]은 [illegible] 二十九[illegible] [illegible] 地 田十五[illegible] [illegible]十二[illegible] [illegible]이 入[illegible] [illegible]一[illegible]이다 每年經費가 一萬六千九百十四圓가량이고

1、學級數 男子部 十二學級 女子部 四學級 合計 十六學級

2、生徒數 男子部 七百五十六名 女子部 二百六十七名 合計 一、〇二三名

3、職員數 男先生 十二名 女先生 四名

4、卒業生男女合計一、一七六名

5、職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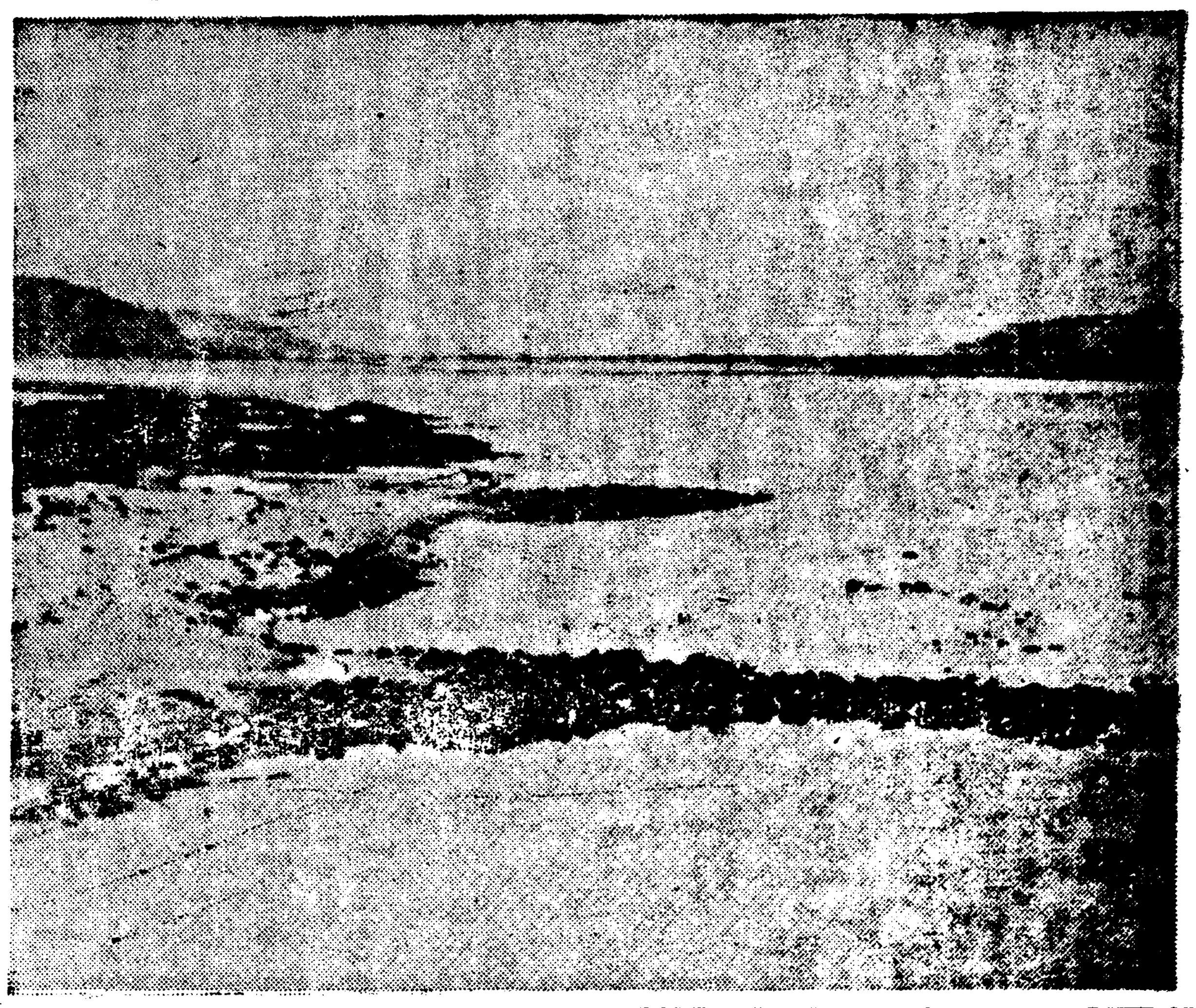
學校長 三好靜雄

訓導 金鳳俊 李始日 [illegible] 崔光石 宋秉律 申鉉九 高永孝 金達弘 末次悅藏 佐佐木 黃晉 木田次郎 三好晃己 女先生 金吉女 朴貞女 服部正秀 東島千力

聖地에소사잇는 奉三學校雄姿

거룩한 聖地! 安岳郡龍門面玖花里뒷산기슭으로부터 울려나오는 聖鍾소래! 平和한農村에殷殷히 들려올때 길가에 農民맛가운데 소몰고가든사람들이 농소래와가티 옷둑서서 맛치世界名畵의「晩鐘」과가티 긔도를올니고잇다 오직하나님만밋고 世上의 雜念을 除한 그들이 살고잇는곳 仙境이안이고무엇이랴! 이곳은 天主敎本據地인데 黃海道에 잇서서 三十有年歷史를가진 稀有한 敎會이다 至今으로부터 三十七年前에 佛國人吳保祿氏가 玖花里에 와서 天主敎會를 設立하고 其後五年인 即三十二年에 奉三學校를 創立하얏다 그리고 隆熙三年四月八日에 正式으로 認可를 맛고開校를하얏다 그리고 徐神父가設立者로서 活躍하고 敎員一人과 生徒四十八名이 지내왓다 大正三年에 이르러서는 車鏞松氏가 引繼하얏고 그다음에는 校勢가 擴張되고 諸般事業도 增計되니 佛國神父南一良氏가 設立者로서 引繼하얏다 校長에는 金秉善氏로하야 敎務에 充實케 하더니 申鉉均氏에게 校長의 任을 傳하고 辭退하니 申神父는 全心으로 學校將來를 爲하야 多大한 勞力을 하얏다 申校長이京城으로 榮轉되자 李善用氏가 設立者兼校長의 職에 任하야 校舍增築 運動場擴張 復敎舍修理 學級增設 校內設備充實等 海西敎育界에 絶對遜色이 업시 만들고 至今의 腹案은 普通學校昇格運動이다 모든것이 不遠成立할것이로되 더욱內容充實을爲하야 苦心焦思로 敎會일로있이지만 學校일에 餘念이업시勞力하고잇다 校勢는이러하다

◇寫眞…李善用氏



추수천일색!

수술바들것은 가을철에할일

여름에는하면곪까싶고 아물가도더디한다

여름철에는 외과수술(外科手術)을 잘밧지안는것이 일반의상식이되다시피 되엿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맹장염(盲腸炎)이나 자궁외임신(子宮外妊娠)과가티 밀각을 지체할수업는 대단한경우라면 몰라도 그다지급하지안흔 아무때라도할수잇는 수술이라면 여름에안밧는것이 사실조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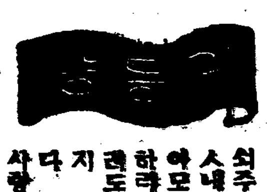
여름은 더위때문에 외과환자를 치고 저어다영양물종이 되어잇고 체력으로보드래도 다른철보다 쇠한편이며 신진대사도 납붑니다 따라서 여름에수술밧는것은 재미업다는천입니다.

그러나 수술의 결과를 노코 본다면 여름이 되어서 회복이 더디 되다거나 수술한 자리가 곪는다거나 하는 일은 업습니다 곪는다는 것은 결국 땀이 나기 때문인데 환자라든지 의사도 적 땀을 흘리게됩니다.

더구나 의사수술할때쓰는메스(칼)를든 손에서도 아마에서도 땀이 떠나게되는데 엇지엇지되어가지고 이마의 땀방울이 수술하고잇는동의 상처에 철거 떠러지기쉬운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땀에는 여러가지 균이 드러가잇기때문에 상처에 떠러지면곪기쉬울것아닙니까

그럿키때문에 여름에 수술할 경우에는 의사도 대단히 조심하느라고 머리를 보재기로 씨운다 모자를 쓴다하는것입니다 그러고 수술후에는 절대안정을해야되는데 여름에는 몹시 더운지라 안정을 제대로하기 어려워서 환자자신도 땀을 흘려 상처에 드러가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후에 먹는음식이라 소화잘되라고 류동성음식을 먹이고 지방분이 잇는것을 안 먹는다는것은 잘못생각이니 수술후 회복에는 영양물섭취가 절대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웁고 괴롭고해서 환자는 죽처럼 영양분물만히 섭취할수 업게되니까 회복도 자연히 느저잡박게 업습니다 가을철에드러서면 누구나 밥맛이 나는법인데 환자도역시 여름보다 이때가더편하고 영양섭취도 잘되고하니까 수술은엇젯든 가을에하는것이 제일조타고할수잇습니다.



쉿내빼는법

쇠주전자에 쇠스내 나는것은 아모리 언니거하라고 곰쿄드려도 잘 빠지지 안흔것입니다 그러나 혹 사랑([illegible])을 한그릇 너허서 오래동안 절히 곰이면빠집니다

실과는 제철이 가을 보기만하야도 구미가 동한다

군것질로 알아서는 잘못이나 그분량만은주의할일

정선한 가을맛은 입안으로까지 풍기어 주는 것은 실과입니다。깨오한 실과의 뒤ㅅ이야말로 여느 다른 철보담도 가을에 맛보록 합니다。서양속담에 아츰에 먹는 실과는 금이요 정심에 먹는 실과는 은이요 저녁에 먹는 실과는 구리라고 하지 안습니까? 그 것을 다시 철로 버거어 말한다면 가을에 먹는 실과는 금이요 봄에 먹는 실과는 은이요 녀름과 겨울에 먹는 실과를 구리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실과는 가을에 제일 만히 먹습니다。그것부터 실과의 제철이 가을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닐까고도 추측됩니다。

실과에 자양분이 적다고 경멸히 아시는 분은 단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데 알이엽니다。자양분으로 본다면 지오만은 그이외에 조흔점이 만습니다。(一) 그향긔와 신맛이 구미를 도다서 식욕을 자아내게됩니다。(二)실과에 들어 잇는 과당(果糖)은 위장에서 소화되는것이 아니요 바로 그대로섭취되여 피로(疲勞)를 회복시킵니다。(三)비타민 빠라든지 몸을 어롭게합니다。(四)그이외에도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모다 우리네지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입니다。그러케 보아서 실과는 단순한 군것질이 아니올씨다。그역시 필요한 음식물의하나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

요사이 만히 나는 실과로 몃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사과가튼것은 여미 모도를 집어시는터니까 더다시 이야기할것도 업겟지요? 배, 한방에서는 애쎈 분인네나 변비증환자에게 끄린다고하나 요사이의 서양빠에는 그러케 끄릴만한 조건이 업습니다。또 살약으로 고기 채한데 배즙을먹는때 그것은 아마 서양빠도 관계치안흘듯 합니다。실분의팔은 수분이요 그나머지는 포도당、과당이 만습니다。백그람에서 생기는 카로리는。오십육이랍니다。무화과。열중의 향긔가 매를 찔르는듯하야 조하안는 사람도 잇습니다。그역시실분의팔은 수분이나 포도당과 과당이 빠른답 만흐니 그 백그람에서 생기는 카로리는 칠십이나된답니다。포도。포도당으로 해서달고 주석산(酒石酸)으로 실니다。비타민 빠와 씨가아조 풍부한데 카로리는 오십삼입니다。석류。한방에서는 급성상햅외 신효한 약으로 칩니다。알은 흙른、찌거도 두엇다가 대려서 먹습니다。그러나 실상 률종이저맛은 조치 안습니다。수분과 당분도 적고 카로리도 삼십륙박게 더 안됩니다。

×

실과도 필요한 음식물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미 말한바어니와 그러라고 한목에 만히 먹어서는 도리혀 재미엽습니다。그저 식후나 식전이나 적당한 시각에 조금씩 먹어야만 그효를 보게될것입니다。

약념가루가되는 수박씨와호박씨

영양가치가풍부하고 깨소곰대신에도조타

수박씨나 호박씨는 아모데도 쓰지안코 버리거나 군것질로쓰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수박씨나 호박씨를 그냥버리는것은 잘못입니다 호박씨는 아주 머릿스나 수박씨는 지금도 모으기쉬운때입니다 씨를 발려서 물에다 여러번 씻슨뒤에 돗자리가튼데에 너러말리십시요 그리하야 그것이 달각달각소리가 나도록 말린뒤에는 적은항아리 가튼데 너허두엇다가 겨울쯤되여서 깨볶듯이 남비나 솟에 복거서 절구에 찌든지 방망이로 두다려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소곰과 조곰도 다름이업는 맛잇는 가루가되며 만히잇스면 깨기름짜듯이 기름을짜서써도 조습니다 영양가치로 보아서도 깨보다 더 만흡니다 그리고 그 맛이라니 정말 먹다가 여페사람이 귀를베여가도 모르도록 향긔잇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무거리찍기가 남은것이 잇거든 보드러운헝겁쪼각에 싸두엇다가 국물가튼데 술적당그어내면 국맛이 조화지는것이니 깨를구지못해 쩔쩔매면서 그보다기름기나 향기가더만코 물에따라군은수박씨나 호박씨를 그냥심상케 버리는것은 확실히 어르석은짓입니다

問 꿈이만하 금년이십이세청년인데 작년봄부터 행보가우둔거리기시작하고 정신이조치못하오며 더운방에잇슬때나 흥분운동을할때에는 정신이찌르며 꿈이만습니다 그간 우혈(牛血)을복용하옵는대 어떠한니까 조흔약을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 (統營 孫生)

答 신경쇠약증인것갓습니다 규측적생활을하여 정신댈변이필요합니다 보약하심보담도단효과가잇슬것입니다 야외가리하면 꿈도적게될것입니다 우혈은보하는데에는적당하오나 기생충의유무를알고도는상치안흔것을마실것입니다 다물에열그가엿슬때에는해롭습니다 ([illegible]仁病院長 林秉來)

몸이노곤할때 하품을『하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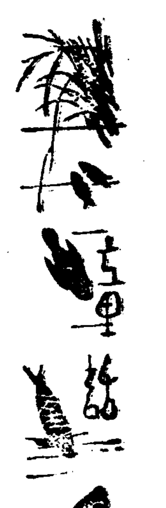
기지개파는것도효과적

일을하고나면 기지개와함품이나는수가잇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나오는 일종의 심호흡으로 피로소(疲勞素)를 체외에내여보내고 피로를 풀어버리는 효과가잇는 것입니다 그리하야 일하는중에라도 간혹서던지 그러치안흐면 안진채고의로라도 크게함품을하야 기지개를쓰는것은 대단히조흔것입니다 하품을할때는 될수잇는대로 가슴을펴서 조장시키여주는것이좃습니다 일이능률이 나지안코 따분할때는 실험해보는것도조습니다 피로가회복되고 정신이 새로워진것이나 여러사람아페서 입을크게버리고 소리를내여가며 하는한품을하는것은 례의상 그다지조흔것이 아니므로 여러사람아모이지안한 한적한곳을 차저서 마음것함품을하는것은 대단히 조습니다.

『거믜줄』

거믜줄에도
눈물을 홀녀주는이가
잇습니다。
은실、거믜줄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묵거믜는
재잡으로 긔여갑니다。

(글쓴사람 오장환)



토끼의방울 (一)

李奎燁

옛뎌산밋헤 동주(東珠)라고 하는 아주어엽부고 마음씨 고흔소녀가 살어잇섯습니다 옛뎌날 동주가산밋숩풀에서 혼자 꼿을꺽그며 놀고잇슬때 한마리의 토끼가 산에서 깡충깡충 뛰여오드니 동주 아페와서 절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지금 늑대한테 쫏겨 오는중입니다. 아가씨 저를 제발좀 살려주십쇼」 하고 애원햇습니다. 동주는 곳 「그래나 그럼 이리 들어오너라」하며 토끼를 옷속에다너허숨겻습니다. 그때빠로 아까토끼가 온쪽에서 한마리의늑대가 실렁실렁 걸어오드니 사면을 휘휘 돌아보며 동주에게 「좀 말슴물어봅시다 지금토끼가 이리가는것을못봣습니까」하고 물엇습니다. 동주는몰으는척하고 태연스럽게 「아니요 아무것도못봣는데요 몰으겟서요 몰라요」하고 대답을 햇습니다 가만이 토끼를옷우로 만저보닛가 간이콩알만해가지고 발발 떨고잇섯습니다. 늑대는 이상하다는드시 고개를 갸웃뚱이리고 「거 어상한데 그려 쪽오줄 아는데……정말 몰음니까 만일감쳐 두엇으면 미안하지만당신을 잡아먹을수 밧게 업습니다 자아 어서 바른대시오」하며 동주를 노려보는것이엿습니다 동주는 무서워서 바로 대줄까하다 토끼가 넘우도 불상해서 좀 용기를내서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배가곱흐시면 여긔 내가점심밥싸가지고 온것이잇는데 맛잇는고기가 잇스니 아예토끼잡어먹을생각은 마시오」라고 하며 점심밥을 꺼내서늑대에게 주어습니다 늑대는 소고기며도야지고기를보드니 아주신이나는지 조와서 쩍쩍먹기시작햇습니다 동주는좀 안심이돼서 「이것을다먹고 돌아가야오 토끼생각은 꿈에도말고……」하닛가 늑대는 「네!」대답을하고 빼가차도록마싯게 다먹고 「아주 대단이 고맙습니다참 잘먹엇습니다」하고 그냥길을 다시돌아가갓습니다 동주는 산으로가는 늑대를 보다가 아주 보이지안을때 안심을하고 「자아! 나오려 어려 괜찬타」하고 옷속에서 파그로 토끼를 내노앗습니다 토끼는 아주조와서 「아가씨 이은혜는 엇지다갑겟습니가 죽어도 잇지안켓습니다」하고 눈물까지 흘렷습니다. 동주는 「뭘 그것쯤이야 례사지 무사히 늑대가 돌아가서 조왓서 만일 싫줄이나 몃스면 랑야걸…… 나도 참 가뿌다」하며 토끼를 안아주며 「그런데 대관절 넌 웨야 곳에 나왓니?」하고 못자마자 토끼는 주의가튼 눈물이 갑작이 초라지며 「네 아가씨 저의아버지며 어머니는 전득에며 여호가 큰눈물에게 잡혀주엇습니다 웨 잇엇는것이 슬퍼 일이지요」하고 말을햇습니다 동주는 「응 그러나 그러면 나만 따라단여라 그럼 내힘자라는데까지 너를 도와주께……」하고 토끼를 다리고 집으로 돌아갓습니다 어리하야 날은가고 달은가서 어떤어라는 세월이 흘러 갓습니다 그러나 이변동안은 동주에게 대하야는매우슬픈 동안이엿습니다. 그것은 가장사랑하여주시든 아버지 어머니께서몰의의병환으로 다시 돌아오지못할길을 떠나신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적에 동주를 잘길러주고 길동하도록 부탁바든작은아버지는 욕심이만코 도박갓 술만자시고 동주의 재산도 다빼어버리고말엇습니다 그러든중 바로어떤을 날리고 바람한 겨울날 술이취하야 눈구덩이에 빠저서 아주죽어버리고 말엇습니다.

어느날──토끼는 깡충깡충 밧게 나가다들어오드니 동주에게 이상한방울을한개주며「누님(친해저서 어려케불럿다)! 제가만약 사람으로태여낫드면 누님을 정성껏 감례드리겟스나 원체 즘생으로 태여나서 엇지할수가 업습니다.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코저 이방울을 가저왓습니다 이방울은 저의아버지께서부터 아주 중하게 굴속에 감추어두엇든 것입니다. 이것은흔들기나오라면 뇌 맛잇는과자가나오더라하면돈 맛잇는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울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하날에서 날러옵니다

布袋記

連載野談 (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畫 (不許轉載上演)

신의잇는편에 (三七)

두목도적이 칼을 들고 제후소저에게 와락 덤벼들새 여려도적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두목도적을 부잡엇다。

이때 늙은 도적은 두눈이똥그래가지고 두목도적을 향하야 「웽。사람을 함부루 죽이려고 헤?」하며 두목도적을 꾸짓는듯이 말하얏다。

「그랭。생각해 봐요。저년마음대로 꼴나잡는다면 나를 꼴나 잡울려야?。그뿐아니라 그호령하는 꼴을 봐요。망할년가르니。내차지가 못될바에야 그까짓 망할년을」 하면서 두목도적은 분에 못이기여 독겁이 숨을 쉬고 안젓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만입 제후소저가 마음에 드는대로 끌려잡는다면 자긔의 울퉁불퉁 개될것을 스스로 깨달음이엿다。

『허허。사람두。그래 어느녀자가 대번에 누가 마음에 드오 할러이야 술술 달내야지。그것참。』 하며 늙은도적은 그두목도적이 녀자를 다루는것이 서루루다는것을 비양하얏다。

『아니。그년의 마음을 달내듯는다면 내게무슨 소용이 잇서。죽여야해。그저 죽여야만 행。내속이 시원하지。』 하며 두목도적은 또한 칼날을 고 제후소저 에게로 덤벼들엇다。

『아냐。이자식이 환장을 햇나 웨이래。』 하며 그어엽부상스러운 도적이 두목의 칼잡은 울흔팔을 몽둥이로 후려갈기며 덤벼들엇다。이에두도적은 또한 서로 멱살을잡고 어리 밀치고 저리밀치며차울새 여러도적들도 다가리 일어서서 두주먹을 쥐고 두도적을 번갈러가며 노려보앗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제후소저를 괴어코 차지하려든 두목도적이 미웟든것은 물론 만일 제후소저가 풀려 잡는다면 반드시 그 어엽부상스러운 도적을 골려잡울것임으로 나중에는 그 어엽부상스러운 도적까지 미울게 생각한 까닭이엿다。

그래서 여러 도적들은 그두목도적을 돕디착고 또한 못배실울하얏다。

이와가티 여러 도적이 한테 어우러저서 왕자리가리는중에 별안간 「이놈들!● 어갈 바떠랑 이칼을 바더!。」 하는 큰목소리가 산이 뜨렁, 뜨렁 울리며 들엿다。

여려 도적들은 망지 신이울은 무당과가티 한창 어울려서 죽옥둥살듬 날뛰는중 그 칼바드라는 장정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내어 단단히 서로 잡엇든 멱살과 괴춤을 열는 노코 그소리를 집으든 장정을 도라 보더니

「아아● 저어가 웬일이야!」 하고 두목도적이 도망하기를 시작하얏다。

여러 도적들은 두목도적이 놀내어 도망하는 통에 그장정을 미처 자서히 보지도 못하고 딸아서 제각각 달아나기에 정신이 업섯다。

이때 늙은도적도 역시 두주먹을 쥐고 딸아서며 『에잉。망할 자식들。논아먹이나 진작하자닛까。그 계집에게만 눈들이 뒤집혀여 가지고 집알 법석들하드니 잘되엿다。잘되엇서。맛잇는 음식을 입에 너커는 넛코 씹어생키지 못한세음。에이 원통해●』 그귀한 보물을。』 하며 숨찬목소리로써 여러도적을 원망하얏다●

이때 제후소저는 맑은 정신은 다나가고 오직 백운국선이 그동안 절명이나 아니되엿나 하는 생각과 또는 그여러 도적들의 담벼들것을 막으려는 독과만 남은 몸으로써 두목도적이 위협하는 그칼의 움직이는것만 바라보고잇다가 별안간 산이 찌르릉, 찌르릉 울리는 큰목소리가 들리며 여러 도적들이 도망질치는것을 보고

『아아。하마레잇든 도적놈이업서진것은 시원하나 뒤에오는 사람은 누구일고。아산중에딴 사람이 오지아니할것。그 소리질으든 사람은 필경 도적놈중에도 더무서운 도적놈안것이 분명한것。그라커나 내 목숨은 이곳에서 긔어코 살어지고 마는것。아야고。불상하지 불상해。백운국선 서방님이 불상해。두눈이 머래로 와석중신이나 하시게할것을 이 방정마진벌 까닭에』 하며 제후소저는 말랏을 마치지 못하고 단단히 묵긴 두주먹으로 짱을 비비며 슬히 통곡한다。

皮膚チヤージ

理想的인이靈藥은 現代人의皮膚美를發揮!

그効力에잇서는驚異되는點이만습니다 그러치만 이皮膚チヤージ는表皮眞皮를 通過滲透하야 內部에깁히숨은病根을殲滅驅逐식히여깻긋한皮膚、爽快한氣分을찾게하는 새로운 이藥의特徵을分析하면

A、殺菌力이强大
B、滲透性이强大
C、刺戟性업시殺菌
D、染色臭氣찐득이지 안는

皮膚藥으로써의 이런四大條件을具備한 現代的理想藥인것은 愛用家로하여금 自信잇는信望을거듭하게하는것입니다

顯微鏡으로 본皮膚病

엇더한조고만한 皮膚面異狀이라도 顯微鏡으로보면 소름이기치는 怪態의 微菌으이나 寄生虫이욱실욱실하고잇는것은 놀내지안코 견딀수업는것입니다。더구나『가렵고』『아픈』程度면、微菌의數는 더욱만코 皮膚病도相當히進展된것으로 보지안어서는안되는것입니다。

×

皮膚의表面에 附着한微菌은、毛細管이나 가장적은間隙에서、深部에 深部에로侵入하야 眞皮의內部에繁殖하게되는것입니다。眞皮의內部面에는 神經이通하야잇는바、「가렵다」고알게쯤만되면、眞皮가犯해워서、神經에 刺戟을주게됨으로써입니다

×

皮膚チヤージ 適應症

근질근질한皮膚病一切・痒疹、水虫、頑癬、陰部癬、汗疹、豬糠疹、面疱、吹出物、毒虫害

―使用法―

藥液을붓에바르던지、綿으로患部에문지르면되는것。

皮膚チヤージ가理想的靈藥인까닭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 大同小異하야 効力이薄하며 使用에不便한곤적거리는 濟藥用도잇지만이런類의 藥은오히려衣服이나外容을더럽힐뿐아니라

=價=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三圓
全身用 五圓

本舖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朝鮮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新井大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大藥房
釜山辨天町 大黑南海堂
釜山辨天町 藤田大藥房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함

季節의 隨筆

夢遊金剛山 (上)

許 然

今年여름은 夢遊遊覽를 가보앗스면 하면 帝國도 遠하지 못하고 장마에다 그제야 나는언제가 興興衡山과 金剛山을 가보자고 約束하얏던 생각이낫다。그속시로 나는 金剛山구경을 간다고 해리를 수습함에 이것을보던 안해는 또 나간다고 야단을하다가 나서도 내가하도 별트대것이라고 어서 所願을 成就하라고 내기와는 질을 빼아사 自己가 손수차서준다。

放學이 되자마자 東淸溪로 歲遊로 平安道로 두루 도라단이는동안에 더위도 거의가고 장마도 한풋 지나가다 이러케 쏘다니다가 집에 도라오는그날 長安寺에서 宮義한

鐵原까지는 어떠케 왓는지 거기서 內金剛行電氣車를 乘換한다음에 맘이 繁忙해진다。平康가 못나고 車가 驛驛을 꺼고 산모도리를 돌때마다 『어기가 金剛山이 아닌가?』 窓으로 머리를 내미고 보아지안는 그산을 바라보고 차자보게되엿다 車時間表와 時計를 손에들고 안정권만 時間도 되기전에 아직도 內金剛驛이 깜아득 먼것도 모르고 金剛山이나를 마중이나오는듯 길은절반도 못잇처 그산을 보려햇다 그러나 鐵原을 떠난지 네시간만에야 아술아술한 비탈길로 無數히斷崖絶壁을 넘어다 한쪽 그림이 눈앞에 나타날제 적거시 金剛山이나고뭇을 필요가업다 內金剛驛에나려 기다리고잇는 長安寺의손님을찻고 水壯이러는 金剛山을건너지이、오래 별르고 못이루던 宿願을 達한 기쁨이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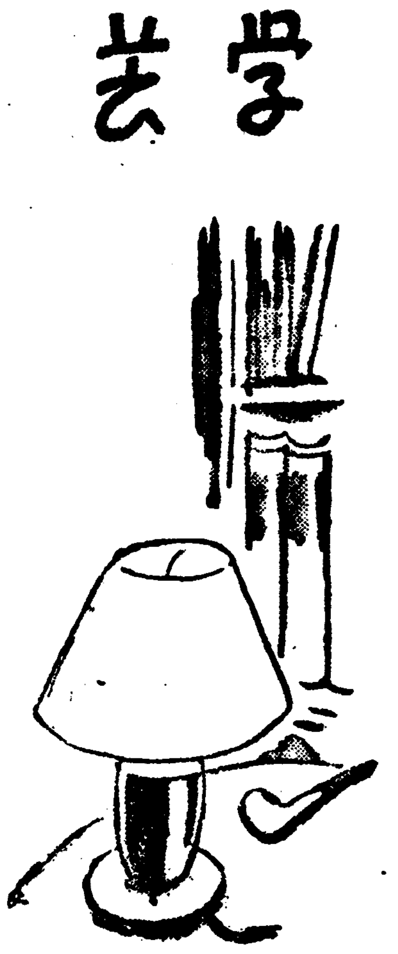
때마을 비게인뒤 夕陽이라 빗나는琴오리 저마다 머리를 들고 萬谷水한데모여 달리는 소리 長安寺 압개울에 자고 넘치는데 욱어진 樹林속에서 저녁煙氣서서히 어리난다 나는어데에새삼스러히 물소리가 그리웟다。

金剛山에저버드니 水聲가를 들이고
滿口옥은樹林 法語이 어리는데
만멀서 중이되엇이 물소리가 그리워

金剛山旅館에 짐을 나리고 長安寺에 지팡이를 끌고 長安寺에드러가서 法堂에 禮를 傲하고 은은한 북소리에 마처 중들의 念佛소리 높다나지다 한참동안 듯다가 도라와자리에 누으니 몸은피로나는 물소리 밤이 깊을수록 더 더욱 높아지다『金剛山! 물소리 노픈金剛山!그 물소리가 소리에 잇고나!』나는 메니슨의 코러쏭 한머리를 그대로 외이며 물소리듯는채 잠이드럿다。

"How sweet it were hearing the downward stream, with half-shut eyes ever to seem falling asleep in a half-dream."

學藝



文章論

現役作家들의 伎倆

―그들의個性과領分에關한小考―

◇ 安 懷 南

『꿈을 비처주는것에 아름다운 귀절과절이잇다。여름에는 바다가푸르고 가을에는 화단이 맑고 봄에는 오입이화려하며 겨울에는—겨울에는 새체가가난하다。눈조차 풍성하지못하면 늙은나무가지는 앙홀하며 꿈은 여위여 간다。』

(李孝石氏作『霜樹賦』)

이만하면 名文章이라고 할수잇다。애써 美辭를 말하면『앙클』이라는 말은 初聞이며『앙칼지다』『앙상하다』와

…同…意味로는것이라 語좁되는데 그것을直譯하고『풍성』이라는 華麗의使用은 冬節의눈에는適合하지 안흔듯하다。오하려 차히다 라는말을 너허서

『눈조차 차이지안흐면 나무가지는 앙상하며 꿈은 여위여 간다。』

이러케 하는것이 낫지안흘가何如間李孝石氏의 文章은 相當요만한 程度의 精緻함은 茨지못하면서도 全體로 보면 相當히彫琢되어잇스며 上記한바 속에서도 바다의夏節 花壇의가을 濃彩의봄等等세의아름다운 꿈을 비저주는 各各 季節의印象을 端的으로 버칫하게 表現한外에 한冷冷한 겨울의 貧寒을 말하야 겨울은 色彩가 가난하다 한것은 정말 名唱이다。

『초목이란 초목은 모다 아름다운것이지만 저나무의 아름다움은 새로운발견이엇다。고든줄기 검푸른입새 칼칼한자태우신향한 빗갈것은는 산의선율을 넓은바탕판에 세워놋고 나는 무지개를 처다볼때와도 가른감격을늣겻다。』(同上)

여기서도 二三個의 用語를바꾸고시픈 몃군데가 엇지안흐나李孝石氏의 敍述的인 文章에 젼주어 어디까지 이것은 描寫的인 文章이며 同時 그 華麗한

…情… 情緖는 길게 餘韻을 끈다。그리스마스에 記憶해롭세워노흔 대로인데果然 전나무는 푸르빗 귀한室內에도 아름다움을 充滿케하여 이文章을讀하면 閑寂한 鮮한우리로서도 잘 보이는듯한 늣김이다 리用하고시픈 句節이얼마든지잇지만 欲心대로 할수업고 하나만 더든면

『옛소설가들의 초상과 다지안는 파어프란이 엇든 방안에 산의절그를 마자하자 신선한 생기를띄고 빗나기 시작하엿다。책상우에 오색이 어른거리고 이야기업는 원고지가벽든것가티 하얏다。나는 차린한 무지개를 늣기면서 이야기속사람처럼 감격속에 안젓섯다。』

小說家 李孝石氏가 詩人의天品을 보혀주는 文章인데 이러한것이 氏의꿈을 모라다가 最近의『산』『들』가튼 로맨티시즘을 낫케한것이 아닌가한다。

뒤를이어 朴泰遠氏의 文章을 이아기하고시픈데 氏는 金裕貞氏等과 함께

…文… 章에對하야너무無心을갓고 도 華美를잇는 文章을 숭것으로 因하야 一部 批評家들에게 不信한攻擊을 바든사람이다。拙劣한文章을 拙劣하다고 警告하는범어시 能熟한 文章家에게 向하야 그能熟함을 弄兼하는 所謂 評論家의 心思야말로 무슨까닭인지 理解하기 어려우나 一言而蔽之하면 그들의主張은 文章만 훌륭하면 무슨作品的價値가잇느냐 하는것인대 文章까지가 보잘것업는것보다는 文章만이라도 되것이 몃倍價値잇다。朴泰遠氏의 特徵은 그것이 主觀的인데잇다고 본다 李泰俊氏의 文章은잇데엄는것은 節約하겟다 하는 選擇主義이나 朴泰遠氏의文章은 무엇이든지 빼노치안켓다 하는 蒐集主義이다 그러기때문에 李孝石氏의것 보다도 더욱 描寫的이고 文章을 製作하는態度에 잇서서 너무꼼꼼하다는 印象을주는데 이것이 金文輯氏로 하여금 科學的文章(?)이라고 命名하게하엿는지몰으지만 나쁘게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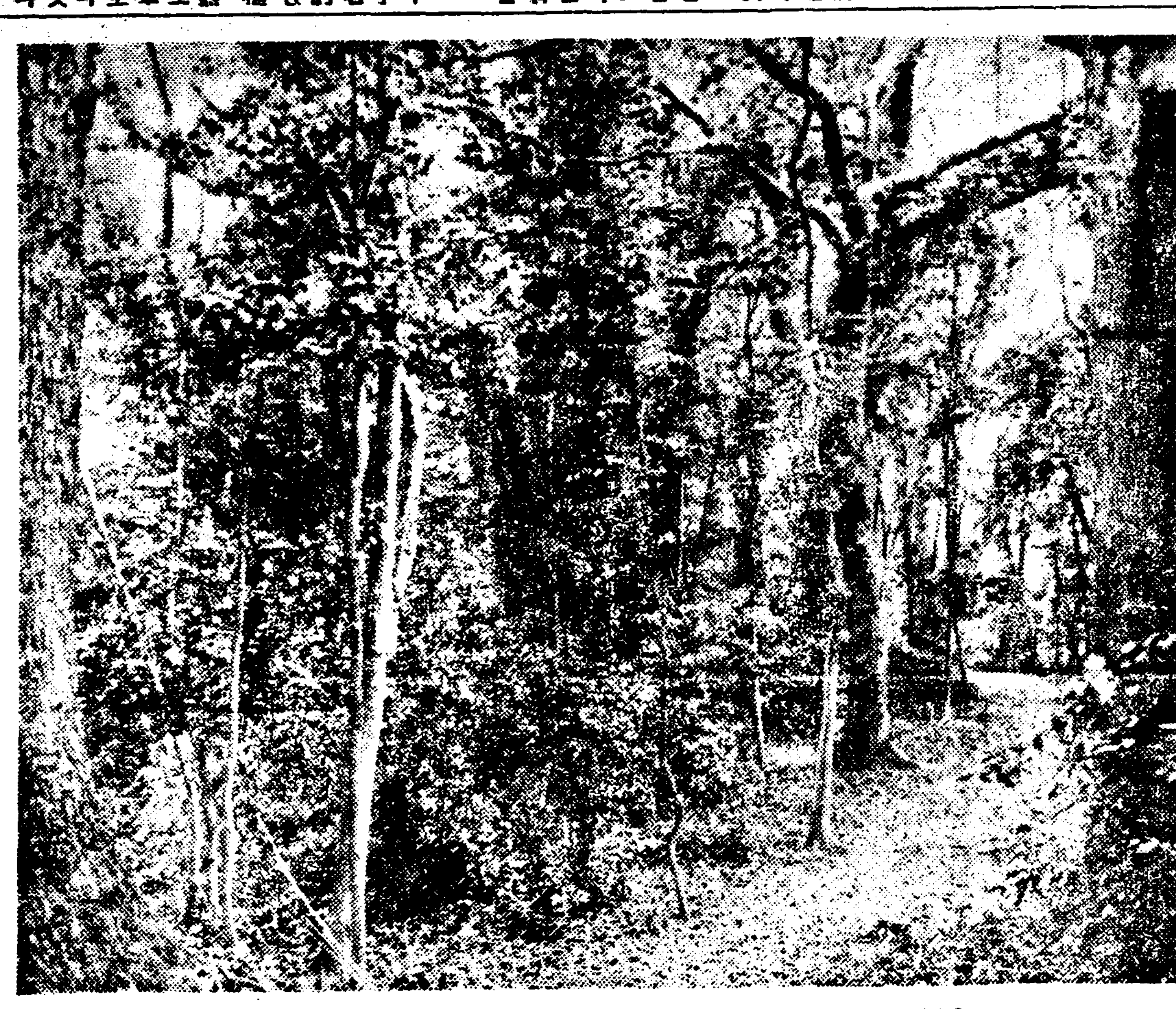
…小… 『悲凉』속에서 直接 見本을들어보면

『그나마,밤이라고 풍로에다끝여먹을때에는, 영자가 일하는 염매서,자기가 방에다 불좀 때기로서니 그다지는 남불상도 흉업게 생각은 되지 안튼것이 지난해 겨울 들어서는, 치웁다고, 구찬타고, 사흠에 이틀은 설렁탕이라, 장국밥이라 식켜다 먹기가 일수라, 영자가 그런것 나는모르다고, 그냥 옷을 떨처입고 그의일터, 카페로 나가뒤에, 아궁지압페가 쭈그리고 안저서 밥마다밤마다 군불을 때지 안흐면 안되는, 자긔의번번치 못하게 궁한꼴이, 물연듯, 눈압페 떠올라,』

아직 센텐쓰가 매저지지 안흔 模樣이며 朴氏는 實로 아무것도 빼노치안헛다。토막토막 잘려노아도 꿈틀거릴것 가튼 文章으로 爬虫類를 聯想케한다。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冥―想―의―길

한글의 名稱

◇그由來와變遷攷◇ (上)

方 鍾 鉉

諺文이 처음 이世上에 發布되以後 오늘까지에 五百年에 가까오나 그동안에 內外로 變遷되것이 實로 自然한일이라고도 말할수잇다 몬저 우리가 이同一한文字에 對하야 부르고잇는 그名稱을 여기서 한번더 再考하려고한다

一、訓民正音

이 글이 世上에 一般으로 發布되기는 李朝世宗二十八年丙寅으로 記錄이 分明하나 그러나 其實은 이보담三年前인 二十五年癸亥冬에 벌서 二十八字를 親製한것이 無違하를 亦是『世宗實錄卷一百二』癸亥十二月條에 依하야 알수잇다

是月上親製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字雖簡要轉換無窮是爲訓民正音

이와가티 世宗大王이 親製한 二十八文字를 곳 訓民正音이라고 命名한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名稱의嚆矢이며 오늘날 正音이란 두字만을 떼어쓰게된 그 始作을 지어준것이다 그것은 鄭麟趾序에

…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

이라고한것에 비추어도 알수잇는것이다

根本 이名稱으로 나타나게된것은 月印釋譜의卷首에 添附되어잇는바와가티 訓民正音은 百姓을 가라치는 正한소리라고하엿슴을 보아도 世宗의 御製임을 알려주는 一證이 될것이다 이와가티 그名稱이 가라처주는 것外에 世宗께서

…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라고 한것을보아도 訓民正音이라는 이일음이 어떠한意味를 가지고 出現되엇는것임을 推測할수잇다

諺文

이말이 처음 使用되기는 訓民正音이라는 名稱보다도 훨신 以前의 일인가한다 그러나 正音이 製作되기前에 使用된 諺文이라함의 語義는 今日의그것보다 좀더 廣義의 語일것이니 卽 漢文이 곳 中華의文字이요 그 言語를 表示하는 手段의것이라고 文이라는 이름을 가지게된것이 當然한일이며 또 이것이漸次 多少 狹意로 一般이 解釋하게까지 되어 今日에 至하야는 正音을 가르치는데 그치게쯤 되엇다 그것은 世宗癸亥十二月條에(엇이 上記한바와가티)

是月上親製諺文二十八字……라고

한것을 보아도 우리는 곳 訓民正音의 根本名稱이 이 諺文 二字가 아니어든것은 알수잇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임이 正音이 新製된 以後에는 諺文 곳正音이것을 알수잇스니

丙申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瓊敦寧府注簿姜希顔等詣議事廳以諺文譯韻會……

이라고한것을 世宗甲子二月條에서 보아 또 그밖게 여러가지 文獻에 나타난것에 依하야 世宗二十八年 正音이 發表된以後로는 순혀 諺文이란 二字가 곳 이正音을가라치는것임을 잘 알수잇다 儒齋叢話卷三第二十四張에

世宗設諺文廳命申高靈成三問等製諺文初終聲八字……

訓蒙字會의訓蒙凡例에 보면

一凡在邊鄙下邑之人必多不解故今乃並著諺文字母使之先學諺文次學字會庶可有曉誨之益矣……

또 芝峯類說卷十八에는 諺書라고하는 語句로 記錄하엿스니

我國諺書字樣全倣梵字始於世宗朝設局撰出而製字之巧實自廣算云夫諺書出而萬方語音無不可通者所謂非聖人不能也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三等之一　大邱府三笠町一八五番地　陳丙吉

閨粧仙女揷新簪
不向東君染綺衾
風漾金波翻葉背
露輪玉滴洗花心
吳姬歌曲殘愁冷
楚容衣裳暮怨深
水鳥驚飛香欲散
蘭橈桂棹莫相侵

評曰有絃外不盡之音

吳澤慶個人展

[海州] 海州出生으로 海州邑에 在學時代에잇서 美展에 數次入選한 靑年畵家 吳澤慶君(二三)은 三年前에 東京으로건너가 修學하여오다가 지난八月에 歸鄕한것을機會로 在東京時의作品과鄕後의作品 六十餘點을모아 九月五、六、七、三日間에 亘하야 本報海州支局後援으로 海州邑事務所樓上에서 個人美術展覽會를 開催한다고한다

『아히생활』原稿押收

『아히생활』九月號는 原稿가全部 押收되야 方今 同社에서 九十月合併號를 發行코자 準備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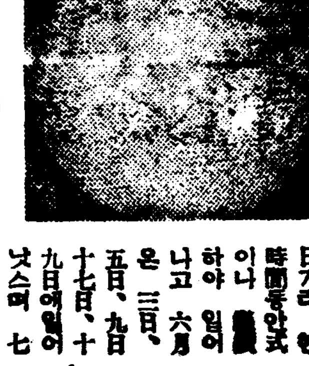
異變의 異變

『데린자ー』現象

─갑작이無軌道의出沒로 五十四日週期說도崩壞─

週期的으로 [illegible] 하야 無軌道的을 不斷히 [illegible] 게하는 宇宙의작난ー[illegible]으로『데린자ー』現象에 異變이 일어나서 學界에 쇼크를 주고잇다 이現象은昨年米國의『데린자ー』博士에 依하야 五十四日을 週期로 하야 일어난다고 主張되어서 지난三月八日午後十時로부러 十二時까지 西太平洋一帶에 無電의防害가 일어나서 四月二日 五月二十六日 博士의 豫言대로 五十四日마다 그가튼現象이 [illegible] 的으로 이現象은 學界에서 그런『데린자ー』現象이라고 [illegible] 위지는 [illegible] 時에 [illegible] 心을 [illegible] 가이다 고까지 [illegible] 되고잇엇다。 그러하야 各國 [illegible] 等에서 이 現象의硏究에 沒頭하게 되엿는데 [illegible] 局의 荒川 無電局長이 이『데린자』現象의 出現을 發表하야 도다시 學界에서는 問題가일어낫다。

荒川氏의 發表에 依하면 五十四日 마다 規則的으로 일어나든 이現象은 五月二十六日을 前後하야 無軌道에 빠저버리엿다 五月은二十六日、二十七日、二十八日 三日間 繼日가러 한時間동안式이나 繼續하야 일어나고 六月은 三日、五日、九日 十七日、十九日에일어낫스며 七月에 드러서는 一日 七日 十五日로繼出하야『데린자ー』博士의 說에 依하면、當然히 現象이 일어나야만 될 七月 十九日은 異狀이 업섯고 七月三十一日에 일어난뒤에는 八日은 거이 이現象이 일어나지안코 二十八日에야 겨우 午後六時로부터 七時까지 電波가 [illegible] 亂되엿다 이結果『데린자ー』博士의 五十四日 週期說은 一年이 못되여 崩壞되고말엇는데 荒川氏의 發見은六月四日과 七月一日 六月九日과 七月七日等 모다二十七日을 週期로 하고잇스며 太陽面의 爆發狀況에 依한것이라하야 九月十日에 開催될 電波硏究委員會에 二十七日 週期說을 正式發表하리라한다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登攀의 高山衛生學的考察 ⑤

醫學博士 申聖雨

그런즉 若干名의感冒와 潰瘍患者에對하야는 무엇으로서 解釋하러는냐하고보면 白頭山城은 一般的으로보아서 濕度가만라고 불수잇스면서도 强風이甚하며 濕度가下降하야 氣候로보아 其寒氣를度는强하다하드라도 濕度가만키때문에 個體의 冷却되는 程度는 快히甚할것이다 또비록登山에는 經驗을가진者라 하드래도 急度로 意外都會 冷却식히는것은皮膚表面血管의 收縮에따러서 內臟血管의 擴大를보아 臟內充血에 加答兒症을 發生케하며 同時에 潰瘍等하게되다 또如此한 潰瘍症은 不完全한 未熟의 米飯 卽澱粉腹이 完全히 破壞되지못한 米飯을 먹기때문에 腸內消化不充分으로 因한 一種의 單純性急性腸加答兒라고 불수잇다

感冒에있어서는 無頭峰까지 또 三池淵 胞胎里等地의 高原地帶는 비록 强風이甚하고 日光이 直射한다하드라도 其雄壯한 森林으로 因하야 强風도 어느程度까지 制止될수잇는것이요 또 直射光線으로 因한日射病가튼것은 수혀 불수업슬만한 地帶인것을알것고 一般으로 濕度가노픈만큼 寒冷 及强風으로 因한 氣管及 又는 咽喉頭점막에刺戟되는程度가 輕微할것이다 卽例를들면 日本內地人이 朝鮮에처음올때는 大槪氣管支 或은 咽喉炎을 알는다고말함은 卽濕氣만흔 地方에서 急作히 乾燥한 地方에 오기때문인것이다。또日光에直射되는光量이적다하드래도 地帶가노픈만큼 紫外光線量은 만흠으로 勿論皮膚의 色素를 沈着식일만한 程度의 刺戟은 밧고잇는것이다

그다음 高度로 無頭峰을 峰으로부터 거의天池에 接近할만한 約二里假量의 地帶는 約九千尺의 地帶인만큼 山岳病이 發生할만한 노피는 되나 數日前부터 數千尺되는 地帶를 徒步하야왓스므로 體驗의 體力은 벌서 그에 適應되야 一種의抵抗力이 生하얏슴으로 急한 傾路를올나가게登山하얏스나 天池에 當到함에 아모特別히 障害를들수업스며 何等의 胸內苦悶 或은 頭痛 或은 嘔吐 呼吸促迫等의 病症을 나타내인者를 보지못하얏다 天池의 雄壯한 大自然의 建物을 보고 나서 急한 傾斜路를 作別하고 나려온것이 겨우 一時間餘이니 筆者의 山岳病發生狀態의 觀察을 爲하야서는 너무나 短時間임을 遺憾으로 生覺하는바이나 其當時 受하면 其强風과 寒氣에 못견대서 急히 無頭峰으로 나려가기를 질기지안든者가 엇섯다 故로 山岳病의 發生狀態를 보는것이 우리 隊員의 目的이 아니요 健康하게 歸京하기를 願하는것이 우리의 所望이엇스니 엇지할수업는일이다。

天池를 向하야 登山할때에 甚한風勢는 누구나ー알것이요또 隊員의殆히 全部가 口脣近處皮膚에 龜裂과 皮膚에 水泡發生이 다如此한 皮膚損傷은 무엇으로 解釋되느냐고보면 第一氣溫에 急速的 下降으로 因한皮膚浮腫狀態에 同時에 鼻孔으로 나오는 水蒸氣水滴이 鼻口近處에 氷結되자 皮膚에 局所的急性第二期凍傷이 發生된 緣由로解釋되는것이다 其外에 無頭峰으로부터 天池에 至하기까지에 無林地帶에 在하야는 萬若日氣가 快晴한 氣候라고할것가트면 相當히 紫外線으로 因하야 皮膚에 障害 又는 紫外線性結膜炎等 其外諸般變化를 불수잇스리라고 筆者는 豫測되다 今番에는 多幸히 不雨與天狀態에잇기때문에 顔面皮膚의 乾燥感 又는表皮剝離 色素沈着等의變化에 不過한것으로 推測된다。大體로 보아서 白頭山高山地帶는 登山의 經驗이 全無한者는 말할수업스나 若干의 登山經驗이 有한者라면 山岳病을 두려워할 餘地는 殆無할것이요 다만 寒氣風勢에對한 準備如何에잇서서考慮할點이有할줄로 밋는것이다。

一般山岳病의豫防及治療와 白頭山登山의注意할點

登山은 地理學 地質學 動物學 植物學 天文學 氣象學等의 硏究上 必要할뿐 外라 身體及精神에 健康上 말할수업는 利益을 주는것만큼 一般化되야 現今에는 世界를 通하야 登山熱은 白熱的流行을 보게되얏다 其結果年年히 各國에 在하야는 山의 犧牲者를 낸다고하나 우리 朝鮮社會에서는 其程度에 밋지지못하얏다 將來에는 各方面에 專門家가 이方面에 有意하는者가 만히날것을 希望하며 또후리醫學者는 山岳病을 硏究하야 其豫防治療에 貢獻이잇기를바라는바이다

豫防法 山岳病은 前項에도 말한바와가티 山의 高度 天候 登山方法 體質 健康狀態 其他에 依하야 發生되는것임으로 如此한 諸因子에就하야 周到한 注意를게을니하지아니한면 罹病치아니하고 萬若 罹病한다드라도 輕하게 끗칠것이요 特히 白頭山과如한 比較的低位의 高山地帶를 探險한다하면 一層容易하게될줄로밋는다 故로 此下에述하는點에 留意하야 豫防하는것이 조흘줄밋노라。

讀者社交室

▲本人은 當年二十歲된 女性이온대 貴報讀者社交欄을 通하야 求婚합니다 某女高二年에 中途退學하고 事情에依하야 花柳界에 投身하와 바가진은 우숨을보우서 가며三年가까운 歲月을보내엇니다 그리다가 今春부터妓生이라는 陋名을버서버리려는決心下에 只今은 歸鄕하야 如左한 條件으로 求婚합니다

生活安定을 圖謀할수잇는 二十五歲以上三十歲以下의 男子면 前室有無를 不拘하고 求婚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欄을 通하유 左記住所로 通知하거나直接 寫眞同封하여 片紙하여주시면歡迎하고 親切이應答하겟나이다

▲天安宇利家具店에잇는貴店에서 二十五日附本社交室을 通하여問議하신廣告法及 商業經營法에關한書籍을 알여드리겟사오니 本社交室이나 左記住所로貴店住所를알여주소서該에關한 書籍이 滿載된目錄도보내들이겟나이다

龍川郡楊市 安映峻

▲金漢龍아우여 兄이 너를三十年前(四歲時)京城府紅門洞서 이러버리고 至今까지 死生存亡을 不知하니 어듸가서 無病長成하엿스면 此社交室欄을보고 下記住所로 通知하여라 (너는 左便귀밋테 紅點이有함)

長淵郡 津南面江井里 金漢龍

▲遂安金一信氏에게 당신의讓論에는 弟亦是大贊이올시다 저는元山한모퉁이에서曾쓸이사려가는한靑年이오나아프로情다게親兄弟가티지내기로맹서합니다 書信來往은勿論寫眞交換도주겟습니다

元山府海岸通六 李仁淳方 丁奎鎬

▲讀者社交欄을通하야 醫學試驗準備生諸氏에게問합니다

一、朝鮮限地醫及醫師試驗資格及受驗年齡
二、各道醫生試驗受驗年齡及受驗資格 年月日別
三、醫師試驗(朝鮮總督府施行)受驗年齡
四、滿洲國醫師試驗및文驗資格及科目 年齡 場所
五、滿洲國에도[illegible]하는지此五項을 下敎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江原翠嶽生 BHL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朝鮮總督府開設以後 官報第一號로부러 昭和二年九月까지 一號도落落이업시 完備된것을 放賣코자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本人에게로 問議하시요

左記書籍도求함
(一)放送社販 社會は何故K備むか定價一圓五十錢 特價一圓에 (二)林要著 貝幣のない社會 同一圓五十錢 特價一圓에

忠南公州邑 李重柱

▲平北 寧邊郡 奉平市 姓名明 ▲京城府 [illegible] 兄이여 相交分離오래도록 追憶의情을 자아내기에 내兄의消息을 기다렷드니 日前에반가운便紙가와꺼에兄의安否도들知하엿스나 當業片紙지런住所가업서 兄의꽃는安否에回答할바업스니 作罷을하여도分數가잇지 [illegible] 어데잇소 엇더케하엿든지 [illegible] 이어렷天에멀리 바라다보면서 "못밧아""울지여부엇스나 [illegible] 바업기에 生覺다못해 [illegible] 하는 本社交室欄을通하야 兄에게告하오니 生覺키우거든便紙를보내주되住所는 [illegible] 하오 俗稱에精神이낫자루빠지듯 빠져떠드니住所업는 片紙야 [illegible] 가아니면무엇이리까?嗚呼大哭

開城南山町實商會 O 生

傳染病

不注意는 禁物!
이상타생각되거든 곳アドース錠을

至今이야말로傳染病이流行할季節이다、身體가妙하게 느릿하고食慾이안나고배가 꾸록꾸록울고、泄瀉가게속되고、大便은粘液質이며때로는血液이석기고頭痛惡寒發熱될時에는一刻이라도주저하여서는안된다。

그무서운疫痢、赤痢、고레라、腸질부사等은以上과가튼症狀으로부터 始作된다。이런때에는그냥두지말고、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 アドース錠만服用하면腸內에滯積하엿든有害毒素와、나뿐黴菌을、기치지안코吸取하야無害케하야體外에排出하며體內의消除를함으로써、가장安心하고治療할수잇다。

大體여름은黴菌의繁殖이旺盛하야飮食物이腐敗되기쉬우며또한寢冷으로下痢와腹痛을이르키기쉬움으로豫防과治療에는アドース錠을推奬하는바이다。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糖衣錠 [illegible]錠(・[illegible]) [illegible]錠(・[illegible]) 120錠(一・〇〇) 300錠([illegible])
錠 劑 100錠(・[illegible]) 300錠([illegible]) 1000錠([illegible])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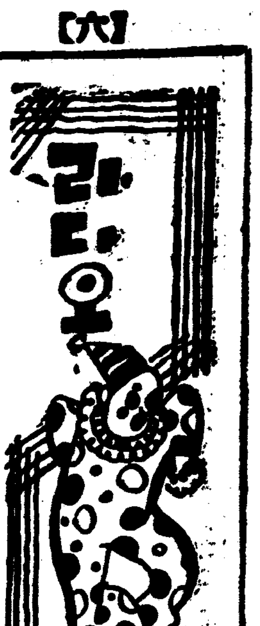
疫痢　慢性便秘
赤痢　一般下痢
コレラ　醱酵性下痢
腸チフス　鼓腸
急慢性腸カタル　食餌中毒
胃酸過多症　藥物中毒
胃潰瘍　自家中毒症

アドース錠

아 도 ー 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大阪・東京・京城

라듸오



五日(土曜)

◇午後六時二五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illegible]」 末松保和

◇同七時三〇分 講演「[illegible]」(全鮮中繼)

「文部大臣 平生釟三郎」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羽衣 四、[illegible] 五、[illegible] 金一宇 大笒 金永根 伴奏

◇同九時 [illegible] 一、[illegible] 二、執杖歌 三、平調歌 四、[illegible] 벼가 尹一枝 朴玉姬

第一放送

◇午後六時(名) 管絃樂 指揮 高橋기요시 管樂 [illegible]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講演 [illegible]

◇同七時三〇分(大阪) 가을에우는버레소리 末松保和

◇同七時五五分(東) 라듸오·버래이어티 風流俱樂部同人

六日(日曜)

◇午前一〇〇〇 野球試合實況 全鮮野球爭霸戰……京城球場으로

◇午後六〇〇 하-모니카重奏 一、나포리의노래…차이코프스키作曲 二、水夫의사랑 三、떠돌-江의잔물결…이봐노비치作曲 四、리오리타 五、세레나-데…구노-作曲 金文珍 [illegible] 金萬英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꿈의延長』一場

—配役—(發聲順)

社長 朴貞植
給仕 金桂永
南植 會社員 楊熙
社員 A 金英輔
同 B 林流影
同 C 李承赫
女社務員 趙曉雲
貞姬 田曉星

演出 青路會
効果 尹白雲
音樂 李昌林
李信愛

◇同八時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夢金浦打令 三、寧邊歌 四、山念佛 五、개성난봉가 六、변조난봉가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春香歌 中 離別歌 金素姬 鼓手 丁元燮

◇同九時 俗謠 一、山念佛 二、打令 三、[illegible] 四、굿거리 [illegible] 韓成俊 大笒 方龍鉉 [illegible]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一〇時 [illegible]交換放送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illegible] 大久保[illegible]

◇午後一時二〇分 (東) [illegible]

◇同二時五分 (東) 管絃樂 岩井宗三郎

◇同六時 [illegible] K오케스트라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八合調

◇同七時五五 (東) 뉴-스演藝 高山[illegible]山 [illegible] 玉井[illegible]山

◇同八時二五分 (東) 寄席中繼 [illegible]

七日(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譚「[illegible]의仙緣」 李[illegible]林

◇同一〇時 野球試合實況『全朝鮮野球爭霸戰』 —京城그라운드로부터—

◇同 六時 노래꿋부(一)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作曲 二、메밀꽃……朴世永謠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illegible]作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朝鮮日報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illegible]의美點과缺點」 黃[illegible]

◇同八時 세라라外 一、[illegible] 二、세라라 三、大[illegible] 四、[illegible] 金[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浮[illegible]草 四、[illegible] 五、人情 六、故鄕의바다를차저 七、靑春[illegible] 全玉

◇同九時 歌謠 一、白鷗調 二、[illegible] 文明仙 金蘭[illegible]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illegible] H·[illegible] 英四郎

◇午後〇時〇五分 (東)[illegible] 小金井蘆洲

◇同六時 童話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京) 講演 江[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大) 人形淨瑠璃 文樂座에서中繼 作·編曲·指揮 大澤壽人

◇同九時 (大) 뮤-직·칼드라마

一流스타들의 納稅額

(移林로픽)

一九三六年度終林스타-의 稅額을 아러보면 喜劇俳優하롤드·로이드가 十萬二千六百圓으로 女優中最高納稅者 노-마·세라보다 六萬二千三百四十四圓이 더만타한다 그리고 쫀·쿠로포-드는 三萬四千二百圓 죠-E·뿌라운은 一萬五千六百五十圓 콜비쓰가 一萬七千百圓으로 메이웨스트는 一萬一千九百圓이라한다 로이드는 또한 貴重한家藏什物을 만히가지고 잇기로有名하거니와 土地를 만히 所有하기도第一이다 그의 家財는 二十萬六千五百圓으로 評價되여잇스며 차-리차프링은 富者로一人者 女優로는 메리·픽포-드가 第一富者라고登錄되여잇스나 今年度의이사람들의 貯金과證券은 아즉얼마式이나 가지고잇는지 모른다한다 그것은州의 所得稅가칼포니아에서効力을 發生한以後 算定에서부터 免除되어잇슴 까닭이라 한다

昨年차-리·차프링은 八百五十三萬二千圓, 픽포-드가 四百四十一萬千二百圓, 노-마·시에라는 九十九萬九千六百圓큰스탄스 벤네트는 三十五萬七千三百圓으로 登錄되어잇스나 그들의 今年度 稅額으로보면,

차프링 (一、一四二、三六八圓
로이드 一、三八四、二〇〇圓
픽포-드 八〇六、七〇〇圓
바-셀메스 三七七、〇〇〇圓
따그러스 三六九、〇〇〇圓
이라한다

토-키化되는『뽀-제스트』

無聲映畵時代의 파라마운트社百萬弗大作『뽀-제스트』가 요지음 토-키-化되다고한다 主演에는『게리-쿠-퍼』를 起用하고 그他 스타프는 近近發表하기로되엿은데 이것은 總天然色으로 한다하니 近來에 드믄豪華版이될것이다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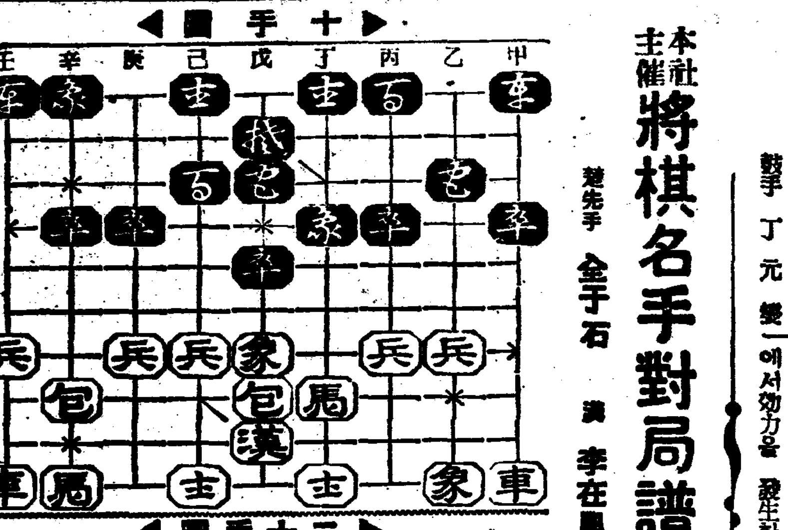
九月六日 (日) 建丙申七月大(廿一日) 辛卯 木 昴 危

●祭祀陟廣에宜함
●處暑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卅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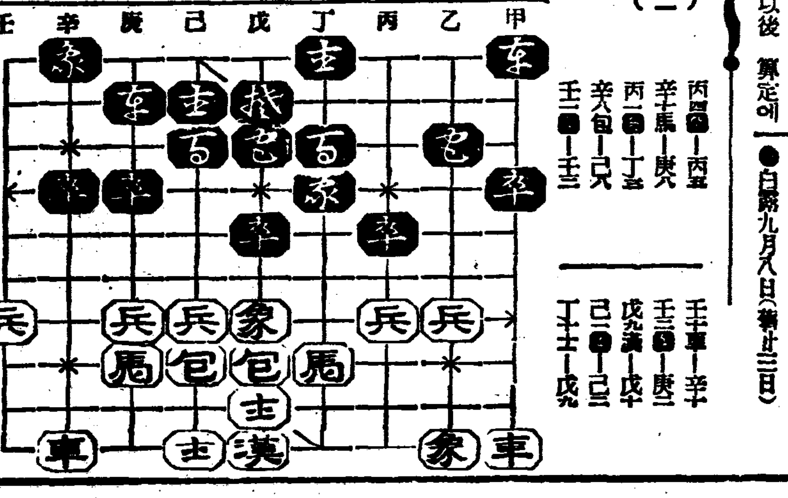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

楚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第十手圖▶



◀第十二手圖▶



丙四—丙五
辛馬—庚六
丙一—丁五
辛包—己六
壬一—壬三

壬車—辛十
壬三—庚三
戊九—戊十
己一—己三
丁十—戊九

品質本位

花王石鹸

花(화) 王(왕) 石(비) 鹸(누)

清楚한살결에 病업다!

무더운여름! 무서운傳染病이流行하는季節입니다 于先무엇보다花王비누로 살결을清潔하게합시다.

東洋一의花王바누는 살결을어엽부게할뿐아니라 微菌을除去식히는衛生的힘을갓고잇습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金鶴ポマ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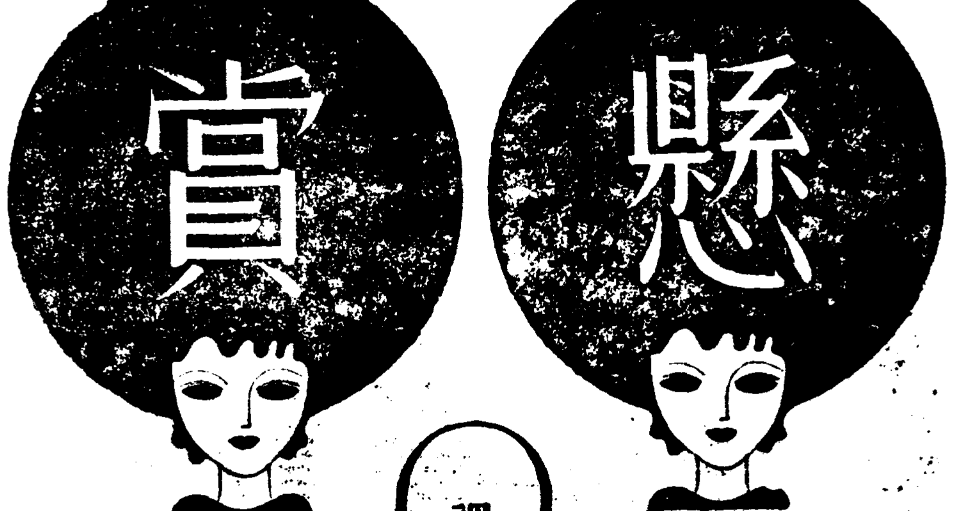
敎養과멜리케씨-를엿볼수잇는……긴쯔루의近代色調美!

.35錢 .50〃 1.00〃

本舗 株式會社野村商店

누구나할수잇는

懸賞



資生堂 콜드크림 바니싱크림

一圓의치사실때마다規定·應募는書及五等賞品을띄지안코드립니다

課題· 당신은資生堂콜드크림또는바니싱크림을어느곳資生堂췌인스토어에서求하시엿습니까

賞品

1等 特製三面鏡 一〇臺
2等 資生堂化粧品組合せ箱 一〇〇個
3等 資生堂ルーズパクト(ホワイトプラー帶白粉) 六、〇〇〇個
4等 資生堂アルモンドミルク 御試用瓶 六、〇〇〇個
5等 新製資生堂モダン脂取紙 御試用品 [illegible]

〆切十月十五日

東京 資生堂 銀座

濟州島內의風水禍 被害額二百萬圓

農作物은平均四五割減收?

船舶家屋被害도莫大

【濟州】지난번 남조선일대를엄습한 태풍(颱風)은 제주도연안에서 풍수해자산실미풍의 강풍이엇섯는데 이대폭풍우로말미암은피해가 불소하다함은 긔보한바이나 이제수자상으로 나타난피해의상태를상세히보건대 제주도 주요농작물이고 도민이상식하는 서속(粟)이 삼할내지오할감수이고 그피해액이 약륙십만원 그다음은 교맥(蕎麥)으로팔할이상이 감수로 전멸상태이며 그피해액이 약이십오만원 륙지 [illegible] 상태이며 과타수도(水稻)、륙도(陸稻)、두류(豆類)、감저등 농작물 피해총액이 약일백사십여만원이며 태풍으로인하야 도괴파손당한 가옥선박피해가 약륙십여만원이라한다 피해의정도를 지방별로보건대 피해가제일큰 한림면(翰林面)이 약삼십만원이수위고 구좌면(舊左面)이 약삼십팔만원 애월면(涯月面)이 약신이만원 서귀면(西歸面)남원면(南元面)중문면(中文面)이 약십이만원이라하며 가옥기타 선박피해가 제일만키는 성산면(城山面)으로 약십만원이며 피해가 제일적은지가 조천면(朝天面)으로 그피해액이 륙만오천원가량이라고 한다 이외 폭풍우로 인한 사상자가 륙명 행방불명된자가 십여명 부상자가 백여명에 달한다하며 두절되엿든 교통 통신도 삼사일만에야 겨우복구되엿다고한다

人命死傷十七名 家屋倒壞七百戶

農作物被害額이三十餘萬圓

淸道郡下의風水災禍

【淸道】경북청도군내의 금번피해상황은 본지에 긔보한바어니와 팔월칠일강우량이 륙백륙십일미리에달하고 태풍의맹위가 집웅을날리며 약삼백년래의 고목을 뿌리까지 업친 대단한긔세에다 청도천(淸道川)방파제방이 결괴되야 탁랑이 부근과수원일대를홈싸바다로 만들고 역전시장옥이실동팔칠간이 모다 산산히부서저 외통 폐허가되고만것을비롯하야 전군가옥의문괴 도괴가 칠백여호에 달한 대참경을 이루고잇는대 군당국의 조사한 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한다

◇被害狀況

▲人命―死亡二人 負傷一五人

▲住家―流失三 全潰四八 半潰一五〇 其他家屋流失六 全潰二七二 半潰二四七 計七二六

▲田畓―流失三六町 埋沒一一五町 被害額六一、四七三圓

▲農作物被害―浸水埋沒五五、九三三圓 風害二四六、五〇〇圓 計三〇二、四三三圓

▲堤防―決潰 一三、二七〇米 破損六、三四四米

▲道路―決潰二、九七三米 破損三、六五二米

▲土地改良事業被害額三〇、八〇〇圓

暴雨再襲警報로 又復避難騷動

【尙州】경북상주에서는 일이차의대수라에 아직도 놀낸가슴이 진정되기도전에 이일오후에 또다시폭우경보가오자 때마침 수방단을소집하야 후천제방을수축하라고 경종을울리게되니 읍내전체는 륙일오후이동요되야 대강의준비를하고 남부녀대하야 노픈곳을차자서 향교(鄕校)와 영빈정(迎賓亭)으로 가는모양이 참으로목불인견이엿다 다행히 만흔비는 오지안니하엿스나 삼일도역시흐리여서 비가오락가락하야 마음을놋치못하고 공포에싸이여잇섯다

入質을拒絕當코 脅迫狀으로恐喝

【群山】지난일일오후사시삼십분경 군산부욱정(群山府旭町) 진삼(津森)전당포(典當舖)에 약사십전후되야보이는 일본내지인 한명이 팔목(구루무)시게한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고저항으로 잡치를아니하겟다고 거절을하얏던바 그이튼날인 이일오후사시경에 한장의 협박장(脅迫狀)이 배달된바 그내용에잇서선 어제수치를 끼치여주워서 감사하다 그런데 방금은이필요한즉 돈삼백원을 선물지에다 차서준비를 하야두되 만일 불응할의사이거든 문화거다 흰헝겁(白布)을 다러두위라 그리고 만일 경찰서에다 밀고를하면 다음 욕을 보이겟슨즉 그리아예라 하엿섯다 한다 그리하야 경찰서에서는 즉시 용의하겟다는표를 하야두고서는 사방에서 대기를하고잇섯든바 그날밤열시반경에 인력거부일명이 편지를 한장가지고 온바 그편지에 돈을이차부에 보내달라하얏슴으로 차부를보냇고사실을 조사한바 전정(田町)등천의평(藤田義平)씨집 아페서 어떤일본내지인한테서 부탁을바다가지고왓다하므로 즉시 그곳으로 달려갓섯스나 범인은 벌서도망을 가버리고말엇슴으로 방금 군산서에서 엄탐중이라한다

鎭南浦商議會頭 椅子問題로紛糾

總會席에서醜態百出

【鎭南浦】진남포상공회의소는회두의의자를 가운데두고 제각기회두와 의자를 점령하려고 분규의추태를 연출하야 방금진남포상계의 웃음거리를 일으키고잇다 전회두렴룡섭씨가 사임한후 지난이일오후두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회두를 선거키로되엿든바 개회벽두에 중지(重枝)의원은 오늘은 의원간에 공긔가 자미롭지못하니 다음날로 연긔하자는 긴급동의가 튀어오자 가장공정한 립장을가진부회두윤기원(尹基元)씨는 그네들의 내부에 조치못한일들이 잇슴을 알고 방금 진남포부에는 상수도 문제 재산권 축항 문제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하여잇는 이때 회두문제를 하로바삐 해결하지안코 다음으로또다시 연긔한다함은 그리유가어대잇느냐고 반분이일어나 장내는 대혼잡을 일우게되엿다는바 전연(田淵)씨의 일본내지인과 조선인간에 알륵이 잇다는 말이 나오자 윤부회두는 극도로 분개하여 어찌그런근거업는말로 조선인을공하느냐고 통론하여 장내는 일대혼란중에서 이상차 휴회를선언하고 갈분을박하다가 결국 중지씨의동의는 성립되여 개회한지세시간만에 그냥산회하고말엇다고한다 금번일어나는분규의원인이 공직을 가진자들로 진남포상공계를위한대국적견지를 떠나 개인간의야심이 만만하다는것으로 일반의비난이만흔동시에 현재와가튼의원들은 총사직을하고 의원을일신함이 지당하다는설이 대두되여잇슴으로 장차어떠한결과를 내일는지 매우주목되는바라고한다

要救助農家戶數 四千五百餘戶

全北道廳救濟策講究

【全州】금번 일이차전북풍수해로 피해리재민호수는 약이만삼천호에 시급히 구제를요할 세농가는 약사천오백여호나 된다고한다 이에따라 전북도 사회계에서는 일부 로인을산포코저 사방공사장 인부에 일선을하는 일방 명년도 맥수확긔까지는생활부조의 시설로 부업장려를대대적으로 실행하되 본부로부터 구제자금이 도착되는즉시로 그지방유력자의 후원을어더 곳착수하리라고한다

水災畫報―(上)水國化한靑丹平野 (下)倭館支局에서 罹災民에게 本社慰問品을 配給하는 光景

高地帶開發案 三日總督府에提出

【咸興】함남도와 삼분의일이상의 광범한 면적과 이십만명이상의 화전민을 가지고잇는 고지대의 대개발안(開發案)은 루보한바와가티 수개월을두고 농림국(農林局)축연을 엇지하야 료용위상에까지 페처 갓분문에세밀한 연구를 거듭하야 오든바 지난달말경에 드되여 최후적성안을 엇게되여 삼일부로 총독부각국에 제출하야 승인을구하게되엿는데 수개년을두고 계획하고잇든 이개발안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용인되여 실행에옴기게될는지가 자못 주목되며중대한 사회문제로 되여잇든 화전민(火田民)의 전도도 좌우될 중대한 문제다

生活難에부닥겨 靑年鐵道自殺

【開城】지난삼일밤 개성역에도착하는 열시오십오분 북행렬차가 궁정공보(宮町公普)근처를 통과할때 어떤청년한명이 뛰여드러 살가리달려드러 무참히 치여죽고말엇다는데 그는본적을 파주군(坡州郡)에두고 삼년전부터 부내 궁정(宮町)삼백사번지에와서 살며 품파리나해서 근근히살어 오든 김경배(金景培)(二四)란 청변으로 오늘날 이가려 죽엄의 길을 밟게되엿든 요지음 재해리와창마등에 품파리조차 제대로못하야 극도의생활난에 봉다기다듯해 죽고만것이라한다

地方人事

▲丹羽左門氏(龍岡金融組合理事)轉任人事次本報龍川支局來訪

▲川上唯夫氏(龍川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 同上

〃탱크〃에轢死

【開城】조선운송주식회사개성지점에 근무하는인부 손경성(孫慶成)(二七)은 지난일일 부내개성양조주식회사에서 중앙 양일요기량되는 〃탱크〃를 통회사이전지인 개풍군 중서면 판전리(板積里)로 운반하든도중 려현(礪峴)도로에서 고만실수하야〃탱크〃가떠러지며 그를내려눌름으로 끄러저 전기경성은 무참히 죽고말엇다 한다

咸興體育會主催 씨름大會延期

【咸興】오는 오、륙량일동안개최하기로되엿든 함흥체육회주최(咸興體育會)의 제일회전조선 씨름대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는십구이십량일간으로 연긔하엿다

死線直面한罹民에 本社慰問品配給

本報倭館支局에서

【倭館】악이정썩의피재민들내인 경북왜관은 집과양식을은 의복을 일코 경찰서보장(保護場)군회의실기타에피난하여 배를주리고 우위에떨고잇스며 전염병의위협조차잇서서 이연재민을 연통하여 구제의미도하로 고대하고잇엇는데 두궈자의 본사위문품이와서 배부하다는소식을들고 어떤사람은 감격에넘치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조선일보사에서 이웃을준다고요 무어라고 말하겟습니까』하면서 배급장인 왜관면사무소에 살두하야 대구특파원 최창섭(崔昌燮)씨와 본지국이 군면(郡面)당국의열렬한 응원하에서 무사히배부하게되엿는데 제이회의배부품은 약품과과자로 일에 배부하기로하엿다

定州地方에豪雨 浸水家屋六百戶

下水溝施設不備가重大原因

農作被害도不少?

【定州】지난삼일오후 두시부터 동네시까지 두시간동안이나 퍼붓는 호우로 정주시내의 하수도는 전부넘처서 시내에 침수된가옥이 륙백여호에 달하는데 피해가 심한곳은 성내동(城內洞)방면으로 하수도의 시설이불완전한 관계임으로 일반주민은 당국의 무성의한시설에 비난이자자한중이며 정주군일대에 풍년을 예상하든 농가에서는 신여년래에 처음으로 퍼붓는이번 비에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수심에싸여 잇다한다

鳳山地方浸水畓 二千町步

【沙里院】지난 이일 폭우로인하야 은파천(銀波川) 서흥천(瑞興川) 재령천(載寧川)이 모다범람되여 봉산(鳳山) 서종면(西鍾面)과 재령(載寧)삼강면(三江面) 화산면(花山面)은 물바다를 이루엇섯든데 인명과 가옥의 피해는업스나 전、답이 약이천여정보가 침수되엿다 동지방은 일월이후 세번재나 수해를입어농작물은 니토(泥土)에 파뭇치고 물에 부패하여 전멸을면치못하게되여 당지농민은 우수에빠저 잇다한다

簡易學校先生이 生徒毆打코被訴

被害生徒는方今入院加療中

事態의進展을注目中

【高原】함남고원군산곡면건천리간이학교선생 리모 (山谷面乾川里簡易學校先生李某)는 생도를구타하엿다고 상해죄(傷害罪)로고소를 당하엿다는데 고소를 제긔한사람은 동군동면동리 류영수(同郡同面同里劉永洙)란 사람으로 당지고원서에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을 아리보건댄 그의아들 재문(載文)(一三)이가 당지간이학교 제이학년에 통학하든중 지난륙일이십륙일 산술시간에 산술을 잘못하엿다고 손과 발로 구타를 하엿기때문에 그생도는 인사불성에 빠진것을 동급생이 그부모에게 알리워집에까지 업어가지고 도라왓다가 그이일인 이십칠일에는 상처가 위독함으로 쇠등(牛背)에 태워가지고 동면수산리 리병학 의생(同面秀山里李炳學醫生)에게가서 응급치료를 가하여 수일어겨한후 다시 학교에갓든바 전긔선생은 또전긔생도를 불러세운곳에 『너 이전날 어듸어되가서 선생에게 구타를당하엿다고 말하엿느냐』고 정강이 고태하고 하면서 다시 손(手)과발(足)로폭행을 가하는바람에 전신에 타박상은 물론 허리(腰)가 상하여 전신을 움직이지못하는것을 다시 그부모가알고 학교에가서 업어왓는데 날이갈수록 상처는 위독하여짐으로 고원읍내삼원의원(三元醫院)에 입원치료시키는일방 일개월진단서를 첨부하야 지난달 이십팔일에 고소를 제긔하엿다는데 각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갓다

▲被害者 劉載文 談

나는 첫번 선생에게 마즐때에도 몸이 아픈것을 우리부모가 작구 학교에 가라고하기에 다시 학교에 갓든바선생이 다시 나를 불러 가지고 〃너는 선생에게 마젓다고도라다니며 말하는 놈이니 학교에오지말라〃하면서 발길노 허리를차서 이러케 허리를 펴지못하겟서요 하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떨군다

▲被害者父親 劉永洙氏 談

나는 이런 법을 처음 봅니다 선생이 제자를 구타하여 사정업시 불허를 망각하는것과 또 어린자식이 잘못한 점이 잇드라도 그것을 달래여 가르킬것이어늘 그어린것을 발길로 차서 허리를 상하여 펴지못합니다 원산고려의원에 가서 엑스광선을 빗치여보니 허리상한 상처가 셰기까지시작한답니다 그러니 이제는불구자를 면치못하겟습니다 운

愛慾의彼岸 【93】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송전에 내린 김장로일행은 곳 해안으로 들어다니면서 별장 지을 곳을 골랏다。인색한 김장로가 헤련이가 보기에 실로 의외엿다。

『여긔는 어떨까?』

하고 김장로는 가끔 그럴듯한 곳에 서서는 헤련과 문임을 돌아보앗다。헤련은 그것이 제대답을 듯자는것이아니라、문임의 대답을 듯자는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기때문에 잠잣고 잇섯다 일종 방향적인 감정까지도 가지고。그리고 문임도 무론 아모 말도 아니하엿다。그러나 문임이가 다른데를 향하고 발을 옴겨노흐면 그것은 문임이가 그 자리를 찬성하지아니하는것으로 김장로는 해석하고 또 다른데를 차잣다。

끗업시 떠려케 펴진 바다는 영원의 노래를 부르고잇섯다。별장터에 아모 흥미를 가지지 아니한 헤련은 얼마 따라가다가는 우둑허니 서서 동해의 푸른 물시결을 바라보고 잇섯다 수평선에 구름조차 업고 다만 까마아득하엿다。헤련의 마음ㅅ속에는 오직 강선생의 눈이 잇슬뿐이엇다。쪽판에서 물우럼히 저를 들여다보든 그바다와 가튼 눈이엇다。어듸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헤련은 깜작 놀나는드시 돌아보앗다。그런때에는준상이가 사진ㅅ긔게를가지고 따라왓다。

『지금 그포우즈가 조아요。잠깐만 고대로하고』 준상은 헤련이가 멀거니 바다를 바라보고 섯는 뒷모양과 엽모양을 캐메라에 너흐려하엿다。헤련은 준상이가 원하는대로 응해주엇다 응해주는것보다도 무관심하게 도로 내버려두엇다。

또 한편으로는 준상의 애타하는 심정에 대하야 동정하는마음도 잇섯다。

김장로는 헤련이가 뒤에 떨어지는것이 다행한드시 모르는체하고 문임을 다리고 집터를 보면서 돌아다녓다。아모데도문임의 마음에 드는데가업섯다。문임은 이런적막한 구석에 집을 짓는다는것이 애초에 마음에 들지아니하엿다。입밧게 내어서 말을 아니하지마는 원산 송도원이 제일조흘듯하엿고、또 장전이나 해금강이 송전보다는 나을듯하엿다。마음에도 아니드는곳을남편을따라서 이런 적적한 곳에 와서여름을 나난다는것은 견듸지못할 일일것 가탓다。그래서 김장로가 혜련으로 끌고 다니면서、

『여긔가 조치안어?』

하고 문임의 동의를 구하여도 문임은 대답아니하엿고 김장로가 서가시게 대답을 청하면、

『제가 압아요?』

하고 나를 불평을이엇다。

『누구 위해 짓는 별장인데』

하고 김장로는 행복스러운드시 우섯다。그리고는、

『주인 당자가 원치아니하는 곳이 할수업지』

하고 또 웃고는、

『그럼 우리、우선 해금강으로 가』

하고 다음차로 고성으로 가기로하엿다。

준상은 해금강까지 따라갈수는 업서서 나려서 삼일포를 구경하고 온정리로 혼자 오는 준상은 멧번이나 해금강으로 따라가지아니한것을 후회하엿다。그리고 차가 떠날 때에 헤련이가 차창으로 내다보면서 던진 우슴과 고개숙임의 뜻을 이것인가 저것인가、하고 두루 생각해보앗다。그리고 송전서 바든 헤련의 사진이든 코닥상자를 소중한드시 만저보앗다。오래 두고 볼사록 헤련은 들잇기 어려운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리고는 어지와 감정이 끌고로발달한 여자인것 갓타서 준상의 가슴ㅅ속에 일어나는 사모의정은 더욱더욱 기떠지고 간절해젓다。

『하나님 감사하옵니다。이런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하여주심을 감사하옵니다。그의 사랑까지도 제게 보내어주시옵소서。저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겟나이다』

준상은 일생에 처음되는 정성된 뜻으로 이러한 긔도를올렷다。

『내일 갈레니 깨끗한방을 잡아주어』

하던 김장로의 부탁은 준상에게는 큰 봉명인것갓탓다。그래서 준상은 온정리에 오는 길로 여관이라는 여관을 모조리 훌터서 개천ㅅ가로 향한방들을 잡고 제가 잇슬 방은내일 또 마련하기로 하엿다。그리고는 조회를 사다가 손소도배 떨어진데를 발르고 또 방을 깨끗이 치우고 걸레질까지 맑앗하게 처노코 이부자리도옷닛、벼개닛과홋니불을 새로 갈도록 주인에게 부탁하엿다。

世界唯一・完壁을誇함

農業用 小型 얌마―디―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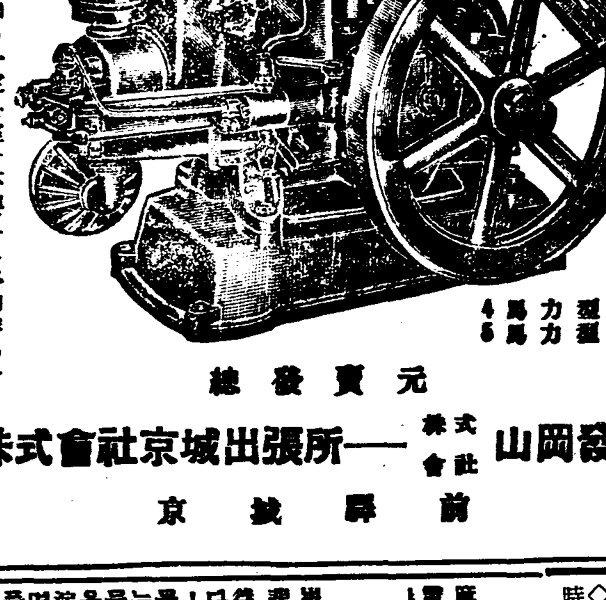
一、運轉經費電力의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始動簡單、兒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出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다―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回轉에差가없어모―든用途에歡迎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元賣發總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株式會社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京城驛前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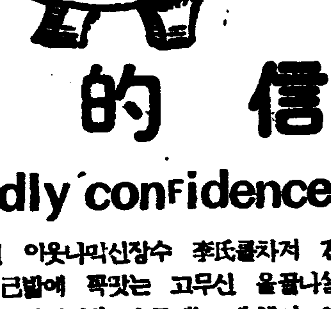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友誼的信用

Friendly confidence

약四十年前만하여도 金氏는 木靴(나막신)가 所用되면 이웃나막신장수 李氏를차저 견양과모양을말하고 흥정한後 맛처어신엇습니다。그러나 只今은 金氏子孫들이 商店에가서 그저自己발에 꼭맛는 고무신 을골나살수잇는 世上이되엿습니다。

이전에는 山間僻地에서 乾魚를맛보는것이 珍貴한일로 알엇지만 今日에는 生鮮이 어름에 貯藏되야 全國各地로 運搬되어 廉價로 販賣되고잇지안습니까。

四十年前에는 平壤서 京城까지오려면 徒步或은 말을타고 數日을 虛費하지아니하면 안되엿스나 今日은 五時間內外에 올수잇스며 그費用이야말로이전 平壤서 京城까지오는동안의 人馬食代에不過하게되엿습니다。

現代人은 또한 昔日의幾分之一의 費用으로써 世界各地의 產物을使用할수잇으며 天產原料 氣候 製造上特殊關係等으로 因하야該地方에서는 製造할수업는 物品도널니 使用할수잇게되엿읍니다。

例컨대 日本은 棉花를輸入하야 綿織物을輸出하며 에치오피아로부터 原皮를 또한 米國으로부터 諸 化學製品及機械類等을 輸入하고 綿織物 其他製造品을 世界各地로輸出합니다。

上述함과 如히 現代商業은 多方面으로 發達됨을따라 弊行도 外國藥品을 輸入하야 널니海內海外로 配給하오나 變치안은것은 人間의常情이외다 只今도人間同志의따뜻한 交誼를질기며 同胞間의 信義를개르리지안코 顧客과去來上의 信用을 바라는것이古今의人情이외다。

柳韓洋行은 이와가티 發達된 現代商業의 모든機能을運用하야 널니內外의 諸賢을供給하면서 同時의 友誼的信用과 商業上道德을 確守하고 顧客諸賢과 一般의 共存共榮을圖謀합니다。

諸賢의 設或옛날과가티親히來臨하야 註文하시지 못하야 書面或은 電報電話로써 簡單히 下命하실지라도 弊行은 옛날의 金氏가 信賴하고 木靴를註文한 其人情에어김이업도록 手工을옛기지안은 李氏와도가티 顧客諸賢의 便利를爲하야 最善의努力을다할니다。그럼으로 弊柳韓洋行에 註文이來到하면 即時로 優秀한 品質로 正當한價格으로 迅速히奉仕할뿐안이라 萬一의 問題와不滿이萬一에 생길지라도 友誼的信用으로써 解決하기에 萬全을期하나이다

外國藥品 貿易商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九月三日브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四十分始映

◇와나―쇼날社超特作全發聲映畫 空中活劇 落下傘 監督 알프렛드・그린氏 主演 다그라스・훼어방스氏

日本最初의바라슈―드映畫이다！人亂戰鬪飛行機四機！發動機에彈丸命中과갓치落下傘을背景삼아大空을飛行하는生命的의超人的妙技

◇와나부라사―스社特作全發聲版 갱크劇 民衆의敵 監督 윌리암웰만氏 主演 젬스캐크니―氏 죤부론델孃

世上에이갱크映畫는또다시업슬것시다와너부라사―스自慢의暗黑街暴露恐怖의最初와最後일것시다

◇輸入キネマ特作品 時代劇 大利根의朝霧 監督 後藤岱山氏 主演 嵐寬光三郎氏 原駒子氏

麻浦桃花町 桃花劇場 電話龍山三三番

五日낫부터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開演)

靑春座公演

崔獨鵑作 悲劇 두女子의것는길 全六幕

待望의名劇은드디어上演되엿습니다。女子의거러간발자국에는대개눈물이고인다합니다。여기에거러가는두女子의길에도똑한지아니한눈물의洪水가범람하엿습니다。그들은웨울지안으면안되는가？그리고이演劇을보시는여러분은웨울지안코는면아니되는지요？여기에풀려해도풀수업는千古의수수꺽기가잇습니다。

東劇文藝部編 喜劇 別莊과奇緣 一幕二場

海邊에서이러나는怪奇事件을그린 經快한喜劇

次週上演名劇 林仙圭作「明鏡看報」三幕 崔獨鵑作「港口의沈默」四幕

東洋劇場 西大門町電光 二三

나치스公債政策
◉金融的背景內容

昨年末 百五十億馬克의 手形은 어떠한 金融機關에 各各 얼마씩 所持되고잇는가 함에 對하야 今年一月末數를 보면 發券銀行에 四十四億(二八·三%) 銀行에 七十四億(四七·七%)으로 그 殘餘의 三十七億馬克(二四%)이 事業會社의 所持로 되엇다.

【第五表】手形流通高와 그 配分(單位十億馬克)

	流通總額	發券銀行	銀行	其他
一九三三年二月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六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三年二月比較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獨逸 伯林景氣研究所季報에依함)

×

一九三三年二月末의 比較增은 四十七億馬克으로 그中十三億이 發券諸銀行에 歸하고 其他는 三十二億馬克에 不過하다 即 겨우 二億馬克에 不過하다 即 그大半(七〇%程度)이 銀行及 發券銀行以外의金融機關이 所持한것이다 이런手形은 라이히쓰·방크의割引手形으로 一流의投資物로 되야 銀行經營의 第一線을 形成한다 其額 昨年五月 民間事業界의所持가 昨年五月을 고개로하고 그後것은 政府의 整理工作이 結果에잇서 全然 그部面을 對象으로 한것을 말한다 그러고 이것은 民間事業界가 活況을 呈하야 漸次 資金需要가 擴大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

發券銀行의所持는 十二億馬克은 銀行其他에 依한割引의結果로 그만콤 銀行券의 增發을 意味한다 一九三五年末의 라이히쓰·방크銀行券流通高는 四十二億八千五百萬馬克으로 一九三三年末에 比較하면 七億二千五百萬馬克의 增加로 되다 手形發行의 可能限度는 前者의 整理와 그消化力如何에 달렸다 手形의 整理工作이 順調로 進行되는 동안 一面 그新發行도 銀行이 可能하다 그러나 整理工作에서 一般으로 政府의公債政策에 不安이 잇고 또 手形發行은 不可能할만 아니라 銀行所持의手形은 라이히쓰·방크에 殺到할것이 當然하다 그러므로 再實施策을 著手치안흘수업섯다 그러다이 整理는 新金融과 對時되는때문으로 나치스財政政策에 困難이 伏在하고잇는것이다.

×

나치스政府는 昨春으로부터 今年初까지 約一個年 合計二十三億五千萬馬克의 整理가되엇다 整理公債는 普通의形式에 依하는以外에 比較的長期의國庫證券形式을 求하고 前者에對하는것이 十二億五千萬馬克 後者에 對하는것이 十億馬克으로 되엇다 銀行의形式으로 말하면 整理公債는 勿論直接公募가 아니다 直接으로는 지금까지 貯蓄銀行과、保險會社가 그引受에 當하고 다음에 따라서 銀行 또는 一般公衆에 賣出한다 昨年中發行된整理公債總額十八億五千萬馬克에 對하야보면 貯蓄銀行이 引受한것이十億馬克、保險會社의 五億二千五百萬馬克、殘餘의 二億五千萬馬克이 國庫證券으로 銀行의 手로 넘어갓다 그리고 一般에 賣出되엇다.

×

獨逸의 官許經濟機關은 모두 整理工作이 進捗함을 强調하는데 이에對하야 나치스政府가 公債消化를 促進키爲하야 金融界와 事業界까지 强力的干涉을 잇고잇나 그러나 現在 政府의 公債政策을 可能케하는 根本的條件은 第一 依據에 잇는바 即 財政經理의 進捗될것이다 그 結果로 생긴 銀行所持의 證券이 政府證券에 向케되다 그 內容을 들면 五大銀行의勘定에 잇서 預金(債權者勘定)이 늘엇스나 貸出처럼 늘지안엇으나 그差가 政府證券에 向하다

【第六表】五大銀行勘定(單位百萬馬克)

	一九三三年	一九三六年
債權者勘定	[illegible]	[illegible]
手形(證券包含)	[illegible]	[illegible]
引受	[illegible]	[illegible]
商品貸付	[illegible]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illegible]
資債者勘定(交互勘定)	[illegible]	[illegible]

(註)伯林景氣研究所統計에依한것

南은水害 北은稻熱病!
農作物被害額 五千萬圓程度?
中部朝鮮以南以東에亘하야 一般豫想以上深刻

이번의 連續的水害로因한 農作被害는 農作物被害와 耕地被害를 合算하면 厖大한巨額에 達할豫想인데 아즉交通이復舊되지못하고 또救濟應急對策으로 被害狀況은 遲延되야 判明치못하야 農林局에서는 目下 關係各道에 調査班을 派遣中인데 第一次水害로 因한 中部朝鮮三道의報告가 農林局에 드러왓는데 이에依하면 다음과갓다

	被害面積	價格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그밧게 江原、慶北의被害와 耕地復舊費를 考慮하면 第一次만으로도 二千萬圓을 突破할모양이며 第二次의慘死한被害까지 너흐면 被害額은 一般보다도 더 深刻하야 四千五百萬圓乃至五千萬圓의巨額에 達치안흘가 觀測이잇다고 한다

平北龍川稻熱病
四割乃至七割減豫想

【楊市支局特電】平北龍川郡一帶는 氣候不順으로 因하야 稻熱病이 날로蔓延하여저서 四割乃至七割의 減收豫想이다 그러나 農民은 何等의對策이 업다고

被害實狀調查
朝鮮農會에서도派遣

朝鮮農會에서는 이번의 風水害被害가 甚大함을보고 各地에 調查員을 派遣하야 實害와 그狀況을 調査키로되엇다고

國債利子課稅問題
大藏省解決企圖

【東京電話同盟】目下大藏省에서 成案中인 稅制改革問題中 家屋稅의 國稅移管及 戶數割의 全廢에對하야는內務省과 諒解도되야 不遠解決을 볼것인데 懸案인 國債利子課稅問題는 그實現을圖하라는 主稅局의 方針과 赤字財源公債政策의 圓滑化를圖하라는 理財局方針과 背反하야 意見이 一致못되고 第二種所得稅의 第三種所得稅統合課稅及 有價證券、移轉稅新設問題에도 波及될것으로 大藏當局에서는 그 解決에注力키로되엇다고한다

毛織人絹移入
八月末까지激增

毛織及人絹織物類의朝鮮內移入은 今年에入하야 更히 激增되어 毛織物은 八月末까지에 七百二十五萬圓에達하고 人絹도 또一千四百八十二萬圓으로 五百萬圓에 朝迫하야 朝鮮內의 織物消費新傾向을 示하얏다 그一面絹織物及綿布는 低減傾向을 繼續하얏다(單位千圓)

	今年移入	前年增減
毛織物	七、二五〇	一、三三四
人絹織物	四、六二二	一、六七三
絹織物	五、四五七	三三

綿織은 生金巾과 如함은 百二十四萬圓의 增加이엇다 十二萬圓減이오 各部門을 通計하야 八十萬圓의 入減이엇다

朝鮮、滿洲兩稅關
共同檢查를實施
◇……結局協定成立

朝滿國稅共同檢查問題에 對하야서는 村山稅務課長이 過般來滿洲에 出張하야 關係方面과 折衝한結果 兩者間에 圓滿한協定이 成立되어

一、北朝鮮三港稅關의 共同檢查

一、陸接國境의 共同檢查

一、連絡輸送의檢查

에對하야 諒解가成立되어 今後 事務折衝을 經하야 具體的實施에 入할豫定이라한다

昭和製鋼所에서는
第三次增產計畫
國防上產業上으로

【東京電話同盟】非常時 國策의 一項目으로 國防上 產業上 가장重要한 意義가 잇는 製鐵國策確立에 對하야는 그根本原則으로 日本內地、朝鮮及滿洲를加한 빨리經濟의 緊密强化에 依하야 原鑛石으로부터 鋼에일으기까지의 完全한 自給自足을圖할것은 勿論인데 當局의 對策으로는 滿洲銑의 日本輸入을一層 自由 또는 增大케하야 日滿兩國製鐵業의 相互依存、有無相通의 길을 講究함이 가장急務이다 그具體案을 作成키爲하야 過般以來 滿洲銑의 增產及 日本內地輸入量 增加問題를 中心으로 商工當局、日鐵首腦部及 東京滯在中의 伍堂昭和製鋼所 社長間에 折衝이 繼續되든바 最近 三者間에 原則的諒解가 成立한 모양이므로 昭和製鋼所에서는 將來 滿洲銑(鋼物用)日本內地輸入量을 三十萬噸乃至 四十萬噸이 增加하야 四十萬乃至五十萬噸으로할 計畫으로서 第三期增產計畫을 斷行키로 되고 伍堂社長은 一日 急遽歸滿하야 다시滿鐵當局의諒解를어더 具體案을決定한뒤 商工當局과 日鐵과 再次折衝키로 되엇다고한다

機械類輸移入
二千百萬圓程度

朝鮮內의 工業勃興에 伴하야機械類의 朝鮮內輸移入은 一兩年來飛躍的으로 激增하야 貿易惡化의有力한 一因이되엇는데 今年의 輸移入은 各事業計畫의本格的設置期에 入하야 이輸移入을보면(單位千圓)

	今年八月累計	前年比增
輸入	三、二八八	三六四
移入	一八、〇〇一	六、一一八
合計	二一、二八九	六、四八二

總計二千百萬圓에 達하고 六百四十萬圓의 增加이엇다

米國財界의好轉
景氣指標順調로

今日株는 今年四月十三日에 七十二弗八分一의 노픔값을 나타내이고 떠러저 五月十一日의 五十五弗의 低價까지 이르럿다 그뒤 漸次反騰하야 昨今에는 七十弗臺를 恢復하얏는데 이와가티證券가活況을 呈하는것은 米國商工界景氣가 매우 好調이며 또 西班牙內亂에對하야는 그다지 不安의念을 품지안는 때문이다 即 夏枯期임에 不拘하고 諸景氣指標는 順調로 鐵道貨物輸送의 貨車는 每週七十三四萬車에達하고 前年同期보다 十萬車가량이고 自動車生產高도 五六萬臺로 一割以上의 增加이다 그리고 鐵鋼作業率은 七十六%로 增加하고 其他小賣業의旺盛、物價의昂騰等으로 景氣恢復의 程度는 더욱 本格的으로 되여간다고 한다

米日爲替市勢

【紐育四日發同盟】四日의 米日爲替는 賣二十九弗四十仙 買二十九弗四十八仙

▲東京爲替(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七 買 二十九弗二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七 買 二十九弗二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朝鮮手形交換
八月中枚數金額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查】八月中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 二十二萬七千七百九十三枚、一億三千三百一萬二千七百八十四圓으로 前月中에比하야 二萬八千二百九枚、二千五百八十九萬二千百二十八圓의 各減少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千二十三枚、一千百二十七萬六千三百四十七圓의各增加이엇다고한다

朝石製品賣出

朝鮮石油에서는 開業式前에 交通이 復舊한 全鮮各地에 船車兩便으로 新製品을 配給하고 四日부터 內油소루의 缺乏된 地方으로부터 部分的으로 賣出을 開始하얏는데 其他의地方도 八日의 開業式까지에는 全部賣出키로되엇다

經濟界消息

取引停止 (九月二日)…無記入…安藤德

○商工聯合會結成協議=京城商工聯合會 改組에 對하야 四日 委員會開催의 結果 從來의組合會員五十外 새로히 百十四組合을 勸誘하야 百六十四組合에서 商工聯合會를 組織키로 內定하고 賀田商議會頭名으로 十日前十時부터 朝鮮호텔에서 右百六十四組合의 代表者를招集하야 懇談會를 열고 新定款에依하야 商工聯合會 結成의協議를 하기로되엇다고

○京城土木建築協會會長伊達氏內定=京城土木建築協會의 再建에對하야 總督 總監의 更迭로社團法人의認可가 遲延되든바 四日附로서 南總督、大野政務總監의決裁가잇서 認可되엇스므로 創立委員側에서는 今月中旬에 創立總會를열고 定款、陣容等을決定하고 今月中에 業務를 開始키로되엇는바 問題의協會長은 總督府에서詮衡中인데 退官키로된 慶北知事伊達氏로 內定된모양이라고

○이번 更迭된 田中醫務의 會社入은 本人이 否認하나 伊達慶北은 土木協會長이 되리라고

○「아마구다리」가 또 하나 伊達로 말하면 府尹으로 知事로 나중은 請負業者대장으로 그다음은?

○特殊銀行 會社入보다는 品格이 나질지 모르나 談合事件以後 再建된 土木協會라 事業의 首領答이 必要하겟지

綿絲在荷微增
綿布는顯著減少

四大市場의 八月卅一日現在綿絲布在荷高는 從來와가티 綿絲는 神戶를除하고 모두 多少增加엇는데 一面綿布는 輸出의好調에 따라서 綿絲과 加工物이 顯著히 줄은때문으로 大阪神戶에서 八十餘梱이 줄어서 依然 綿絲大商은 樂觀할수잇다

▲綿絲

大阪	[illegible]	增
神戶	[illegible]	減

重要商品界事情

名古屋	[illegible]	增	[illegible]
東京	[illegible]	增	[illegible]
合計	[illegible]	增	[illegible]
▲綿布			
大阪	[illegible]	減	[illegible]
神戶	[illegible]	減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增	[illegible]
東京	[illegible]	增	[illegible]
合計	[illegible]	減	[illegible]

그리고 卅手의各地在荷를 보면 다음과 갓다고

東京	[illegible]	減	[illegible]
大阪	[illegible]	增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增	[illegible]
合計	[illegible]	增	[illegible]

株式 押目買로 更高

商況 【五日】

前場更强 休日을압둔 半日立會인今前場은 押目買物로更强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東新一圓高인百二十六圓八十錢、鐘新六十錢高인 百六十五圓二十錢 大新十錢高인六十八圓七十錢 日產二十錢高인 八十一圓二十錢 日石三十五圓八十錢 北鉄二十錢高 產新十錢低인二十八圓二十錢 朝人二十四圓五十錢 拓新二十五圓

東新大爆發論

二·二六事件以來 大底保合이 七個月에亘하얏다 前例를보면 昭和五年 濱口內閣當時의 大底도七個月保合이고나서 事業界整理徹底와 다불어景氣를 爆發되엇고 昨年가을市勢도 에디오피아問題로 九月十八日에는 二次計算하는活躍이엇는데 그때도夏枯永保合으로嫌氣가만혓엇스나 一朝人氣가變하니가 可恐할큰市勢가잇섯다 瀕死의病人이 回生되는것가티 떠러질데서 떠러지지안흐엿스니 어디서던지 大爆發無疑이다라는大强氣가잇섯다

日產活躍時代
百圓目標가當然

日產株가 모든角度로보아 活躍의 時機가 接近한것은 이미屢報한바와갓거니와 果然九月一日에 諸株奔騰에 步調를맛치어 一擧保合을 離脫하야 完全히 高價第一步를 踏出하얏다 今日까지 悲氣側의 밥버리가되든것은 同社自體의 缺陷에依한것이아니오 다만 人氣가不涉하얏던때문이다 近來漸次實質에 着目하는者생기고 不人氣가 解消되기시작되以上 株價의 恢復도 當然한일로 五分利回인 百圓目標로 買進함은當然할것이다

七月下旬以來 一個月餘에亘하야 二圓幅을 保合하야下値가絕對로 어는것을證明한 後上放한것이며 좀더크게보면 昨年五月增資가 決定되자 이것을 悲觀하야忍然六十圓臺로轉落하고 以來十有五個月中途에戰事氣分으로한번九十圓臺에 反戾되기는 하얏스나減配로 人氣惡化에 拍車를加하야 其後九個月間에 大底保合時代이엇섯다

其間 모든悲觀을 實證하고나月末부터 形勢一變의相場을示하면서 最後의保合에 入하얏다 斷然히 그高價保合을 上分放하더니 尋常한市勢가아니다 直來會社의業績이 어디까지던

市場小話

(株)……東新百二十七圓臺는七圓떼마事件直前갑스로 이로써 떼마事件時勢는 恢復되엇스니 이以上을늘려면 豫算編成가튼 큰動機가잇서야 하리라고 實하야보앗스나 昨後場東京短期五圓二十錢을 低價로 下派이 고 今前場은 押目買로다시六圓臺▲中間保合으로 締局大底를 入이잇서야할것이라는 軟論과 大勢買轉換으로 大爆發이잇서야 하리라는 以來의 大强氣論對立▲新低價大崩이란 强氣論의 云爲되는것外라면 지금까지 二、二六事件의 大惡材料가잇서야 할것이나 秋高期待로 時間問題일뿐▲나올지 모르는 大惡材를 요행으로기두리기보다 大勢高를 맛고 押目買를 一貫함일

(米)……昨日 靑島附近에 잇든 颱風이 朝鮮中部以北을 通過하는바람에 一大豪雨를 讀來하야 農作物의 被害가 또하나 不少한모양 ▲朝鮮의 凶作은 市勢의 그自體가 벌서暗示하는光景이야 ▲阪仁의 鞘가二百丁未滿으로 縮少하엿스니取引員의 ▲그러나 某某地場側이 稍讀買를하든 그러나 阪地가忘狼狽인걸 當地만이 單獨落하는때는 當地만이 單獨로 維持하지 못할것도 事實▲그러지나 市勢는 이리저리 病的步調를 持續할모양이니 期節도 이로부터 休戰狀態것도갓다 果如何?

戰線擴大形勢
秋高期待로!

電力問題가 國策案이 統制案으로變한것이 國策不安을 크게緩和하얏는데 그것은 株價膨脹과 低金利라는 氣分으로 人氣가顯著히强化되어 新甫에 全面的活況을呈키는 하얏스나 軟派로서는 依然買抑(賣逃도잇섯지만)하고 잇는바아즉 保合關係로나 取組關係로나 脫線的은 아니다 細目은 買하얏스나 投機株는 아즉도 買하얏다할수업고 東新이 百二十圓臺로 나면 人氣一變할것이나 그까지는 좀더少波瀾이잇슬것도갓다

三十錢 日產六十九圓五十錢 朝取七十五圓八十錢 朝新三十二圓 十錢에 各大引되고 滿鐵新三十九圓六十錢一本이엇섯다

◆後場은 土曜로休

▲東新 [illegible]

人氣株日鑛研究

花形株 日本鑛業의 今期는二百萬圓以上의 增益이되리라 한다 그것은 金의產額이 月一噸에達하야 今期通算하야 六噸五分程度에 達하는 增產이될터이니라 日鑛의 買上價로 五月부터 一瓦三圓五十錢으로 一割以上值上인것 及銅의產額도 半期一萬二千噸에 達할모양으로 이實値도前期의平均七十八、九圓에 比하야 今期는八十二、三圓으로 될것가트며 其他의 採鑛도 增加하야 良好되고 產及 市勢는 前期와不變이든것 나 그것도 惡化는아니다

同社는 前月에朝日鑛山을 買收한外에 今期에 入하야 日本內地와 朝鮮의 新鑛山買收로約三百萬圓을 投資하얏다 各製鍊所의 設備工事가 顯著히 進捗되고 增資에 依한 未拂資本이動하얏다 今日 未完成의 큰工事는 鎭南浦製鍊所의 集塵設備(工事費約五十萬圓)은 同所及佐賀關日立等의 粉鑛處理設備이데此等에 要하는 一個所의 設備費는 約七、八十萬圓인바 모다增資에 際하야 資金計畫에 包含되엇이다 이粉鑛處理設備는 鎭南浦에서 好成績이면 繼續하야 佐賀關에도 日立에도 設備케될것으로 目前當社의 業況에는不安이업고 勿論 株主配當은 前期와가티 年一割四分据置일것이다

刊하는 投機株取扱을 하던지 利如何를 基準으로하는根底가 確認될때에 떨어지는 一時値는 限定되고 人氣轉換과共히 上値만이 남어잇는 時代에 入하리이니 今後는 日產活躍時代라하야 刮目할수잇는터이다

實하고 業績向上을 約束하는 것이다

現狀인 同社의內容이 去益充實하고 現狀은 株價가 비로소 目標를 마음이 나 잡어 見通이 一途이오 日鑛이나 日 ..

지 [illegible]

今日財界 (五日)

◆米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綿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短期取引新築開始에 際한 公債界는 將來의 良好豫想과 赤字公債發行條件의 反撥步調로 轉하고 內債는 五分、三分半은 十錢高이고 外債는 佛貨十錢高 米貨六分半·四十錢高 五分半十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五〇

甲五分利 一〇一、〇五 ▲第三五分 一〇二、五二 ▲二回四分 一〇二、四二 ▲一回四分 一〇二 佛貨四分 一九八、一〇 ▲米貨六分半 四 二二、六〇 ▲滿洲公債 一〇〇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當地去益强硬
凶作의見越로

昨日靑島附近海上에서 北北西로進行하는颱風은 進路를다시北東으로變更하야 朝鮮中部以北을 通過하는바람에 徹夜豪雨를襲來하야 農作物의被害가 또한相當한모양으로 今年의朝鮮米作은 昨年度의一千七百七十萬石에比하야 二百餘萬石이나 減少되리라고 某消息通은傳하다 果然今後의天候가良好하다할지라도 凶作을豫見치못할것은事實임으로 昭和十一年產의米價로서 卅圓以下가되는때는 買進할 妙味가잇다고 强氣側은 主唱하다 그러나 朝鮮凶作의 反面에는 日本內地의 米作이 昨年度보다 훨신 良作이므로 日本內地米價의 支配를 밧는 朝鮮米가 반듯이 單獨高를 維持하리라고는 難키 難하므로 三十圓以上의 高價를 내는때는 賣賣成하는것이 得策이라고 軟派는 또한 主張한다 果如何?

阪仁稍漸縮鞘
二百丁도未滿

新甫十一限이 發會되엿슬當時의 阪仁의鞘는二百一丁이엇는데此를 後로한當地某某地場側의 阪地買當地賣의 取鞘的賣買가 流行되엇스나 阪仁의鞘는 反히二百丁未滿으로縮少되엿다 그原因의所在를窺하면 日本內地는 五回나 發生한颱風에도 何等의影響이업시 無事經過하고 오직朝鮮만이 二回나 그 餘響을바닷슬뿐아니라 象하야 去月二十五日以來今日에至하기까지 雨天을繼續하야 農作物의被害가 不少하엿슴으로 當地는比較的買氣가 優越한모양이다 그래서阪地는 日本內地稻作의 樂觀임을딸아 賣氣旺盛하고 當地는그反對의 現象을招來하고 잇슨즉 阪仁의 鞘가縮少될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阪仁의 縮鞘는어느程度까지에 限할것임으로 日本內地의 市勢가 良作의本格的市勢가 展開되는때는 當地도 多少反落되고야 말것으로 觀測하는편이 多하다

各地正米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話】實方=地場軟派地場乘替方=沙崎、

京城軟化 實行不振으로氣迷가 深하고 거의買傍觀이엇고 氣配十錢軟化이엇다

一等白米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仁川少弱 天候關係로實物薄이나 實行一息으로 唱은十錢下放이오 場面은極히沈靜으로休業同樣의狀態이엇다

一等白米三三、七〇 四等三一、三〇

釜山不動 期米不透明으로 人氣不寄이오 小口取引만잇슬뿐이程度에不過하고 市勢不動狀態를 繼續코잇다한다

一等白米三三、八〇 四等三一、四〇

大邱不變 天候不良으로產地로부터 繼續하야 實物이全無이오 大體의正米事情에는 變함이업시 氣配保合이엇다

一等白米三三、一〇 四等三〇、八〇

群山少堅 日本內地人注停頓狀態이나마 天候關係로 實物薄이오 地場當用側의 買物歡見되어 氣配五錢引締이엇다

一等白米三三、〇五 四等三一、六〇

木浦同調 實行不引立으로 新規準備는 躊躇되나 實物薄으로 市勢下 保合이엇다

一等白米三三、〇〇 四等三一、七〇

期米 颱風不拘 漸落

前場低迷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七十錢止와 共히 二十九圓八十五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七十七錢인 昨止同樣의報를傳하엿스나 昨夜豪雨로 買氣旺盛하야 二十九圓九十錢인 五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七十一錢으로 反落하엿다가 八十一錢으로 反高止場함을 伴하야 七十九錢까지下押하엿다가 八十三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漸落 後場은 二十九圓七十四錢에九丁低로 始場後 四節六十六錢 五、六節五十六錢에 漸落이고 五十九錢에止場하다

康益夏商店 米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株式 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朝鮮紙物都賣 北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全北企業株式會社 電光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兼委託販賣

金融 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鑛油價◆ [illegible]

◆鑛粕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期米 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合計高 [illegible] 出來高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海外雜穀◆ [illegible]

◆外米市況◆ [illegible]